

# 舊韓末 平安道地方의 東學

- 教勢의 伸張과 性格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

## 조 규 태

- I. 머리 말
- II. 東學의 受容
- III. 東學教勢의 伸張
- IV. 開化·革新運動과 그 性格
- V. 맺 음 말

### I. 머리 말

天道敎人들은 日帝時代에 정치·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평안도 출신 천도교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3·1운동을 추진하였던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인은 모두 15명이었고 그 중 평안도 출신이 羅龍煥, 羅仁協, 洪基兆, 林禮煥 등 4명이었으며, 入監되었던 천도교인들의 수도 이 지방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즉,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入監된 천도교인은 총 1322명이었는데 평안도인이 628명이나 되었다.<sup>1)</sup> 이는 전체 入監자의 47.5%를 점하는 것이었다.

1) 國史編纂委員會,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4, 1960, pp.901-904.

<별표 1> 3·1 독립운동사건으로 入監된 천도교인의 지방별 수효

지방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황해	평안	함경	합 계
수효	146	0	36	20	5	75	147	628	265	1,322
비율	11.0	0.0	2.7	1.6	0.4	5.7	11.1	47.5	20.0	100.0
순위	4	9	6	7	8	5	3	1	2	

朝鮮農民社의 지방지부 숫자도 평안도 지방이 가장 많았으나 1928년 2월 14일 당시 지방 지부수 총 157개소 중, 평안도지방이 27개소나 되었다고 전한다.<sup>2)</sup>

이처럼 평안도 천도교인들의 활동이 다른 지방보다 유독 활발하였던 것은 이 지방의 教徒數가 타지방에 비해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1935년 간행된 일제측 조사자료인 『朝鮮의 類似宗教』에 나타난 1919년 당시 天道教의 각 지방별 분포상황에 따르면, 평안도지방의 천도교 교도수는 67,763명으로 전국 教徒數 130,884명의 51.8%를 차지하였다.<sup>3)</sup>

천도교의 전신인 東學은 경상도지방에서 일어났고, 甲午東學農民運動 때에도 三南地方의 교세가 강성하였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뒤에 와 평안도 지방에 천도교가 성하게 바뀌었을까. 도대체 동학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전파되고 세력을 갖게 되었을까. 이 문제는 갑오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세의 변화와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점을 밝히려는 시도가 별로 행해진 바 없다.<sup>4)</sup>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에서는 평안도지방에 동학이 전래된 시기와 경로, 그리고 동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기 및 동학수용 주도층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 보고,

2) 全朝鮮農民社編輯室, “朝鮮農民社의 沿革”, 『朝鮮農民』 1930년 6월호, pp.30-31.

3) 村山智順, “年次別·地方別 分布·消長狀況”, 『朝鮮의 類似宗教』 8章 2節(朝鮮總督府, 1935), pp.520-700.

<별표 2> 1919년 당시 천도교의 지방별 분포상황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함경	합 계
수효	588	9,601	1,296	10,484	4,430	16,656	67,763	20,066	130,884
비율	0.4	7.4	1.0	8.0	3.3	12.8	51.8	15.3	100.0
순위	8	5	7	4	6	3	1	2	

4) 이영호, “갑오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 『역사와 현실』 3호(역사비평사, 1990), pp.194-195. 저자는 갑오동학농민운동 이후 동학교단의 조직재건운동을 다루는 章에서, 전국 하부 동학교도의 활동을 살피고 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평안도 동학도들의 조직정비활동과 동학 지도부의 평안도 지방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동학 수용자들의 포교활동과 동학교세의 신장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끝으로 평안도 東學徒들이 벌였던 開化·革新運動, 즉 進歩會 등 민會의 결성운동에 대하여 알아 보고, 이들의 활동양상을 살핌으로써 평안도 동학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시기는 舊韓末, 정확히 말한다면 1890년에서 1905년까지이다.

## II. 東學의 受容

동학이 평안도지방에 처음 전래되었던 것은 1879년 6월 경이었다. 즉 江界郡 龍林面에 거주하였던 李白草가 이름을 알 수 없는 傳道者로부터 동학을 전해 받고 입교하였다 한다.<sup>5)</sup> 江界 외의 다른 지역은 다소 뒤진 1880년대와 1890년대 초에 전해졌으니 『天道敎創建錄』에 평안도인들이 정식으로 동학에 입교하였던 연도와 입교자들의 거주지가 적혀 있어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다.<sup>6)</sup> 우선 甲午東學農民運動 이전에 입교하였던 初期 東學入敎者들에 관한 사항만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평안도 출신 初期 東學入敎者들의 입교시기는 江東의 裴雲翰과 定州의 崔哲一처럼 1886년과 1889년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890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初期入敎者가 많았던 지역은 龍岡, 江西, 江東, 成川 등 평안남도 남부지방과 泰川, 定州, 宣川 등 평안북도 남부 해안지방 및 강변지역이었다. 이 시기, 그리고 이 지역에 초기입교자가 많았던 것은 주로 北接 계통인 황해도 동학도들의 포교활동에 기인하

5) 江界郡民會編, 『江界誌』, 1966, p.117.

6) 李敦化, 『天道敎創建錄』(天道敎中央宗理院, 1934).

동학에 입교하였던 모든 평안도인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天道敎創建錄』에 수록된 사람은 1934년까지 생존하여 있던 사람으로 일정한 기부금을 낸 사람에 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료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통하여 초기입교자들이 많았던 지역과 그들이 입교하였던 대체적인 시기는 살필 수 있다. 또한 『天道敎創建錄』에는 입교자들의 출신지 및 입교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지역별·시기별 입교추세를 살피는 데에도 매우 유익하다.

었다.<sup>7)</sup>

〈표 1〉 평안도 지방 갑오동학농민운동(1894년) 이전 동학 입교자

지역	입교연도	이름	주요경력	전거	비고	
平	龍岡	1983	洪基兆	대접주, 의창대령	331	
			洪基一	접주	389	
	1894	康正訥	접주	388		
		洪基億	대접주, 의창대령	381		
		胡勝澤	접주, 대접주	381		
		金鎮坤	접주, 수접주	382		
		金泰麟	접주, 수접주	383		
		金學瓊	접주, 수접주	391		
安	江西	1892	林聖必	접주, 수접주	389	
		1893	朴禧淳	접주, 수접주	384	
	1894	吳鐵澗	수접주, 대접주	384		
		李肯楛	접주, 수접주	386		
		康正說	접주	390		
		鄭承德	수접주, 대접주	396		
		金泰麟	접주	378		
		韓相堯	접주, 수접주	380		
	金聖溝	접주, 수접주	393			
	南	成川	1889	石用琦	접주, 수접주	409
1892			金燦晶	봉훈	373	
1893		李錫龜		461		
		羅仁協	대접주, 의창대령	407	父 羅錫恒	
		李俊辨		407		
		孫中辨		407	夫 羅錫恒	
1894	金錫浩	수접주, 대접주	461			
	羅龍煥	대접주, 의창대령	565			

7) 황해도지방에 동학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1890년대 초 황해도지방에 상당수의 동학교도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金九의 자서전인 『白凡逸志』 중 “우리 집과 내 어릴 적”이란 제하의 글에 따르면 1894년 말 황해도에는 15명의 接主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단지 接主라고 되어 있지 만, 접주 15명 중에는 首接主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待天敎歷史』 p.79 에 의하면, 崔珣鉉이 海西首接主라고 써여져 있고, 또 『甲午東徒征討錄』 중 “敦通平山首接主”라는 通文에 따르면 해당자의 인명은 알 수 없지만 海安首接主, 平山首接主의 존재가 확인 된다. 接主는 교도의 숫자가 100명 정도되는 사람에게 주어 졌고 首接主는 교도의 숫자가 500명 정도되는 사람에게 주어졌으므로 1894년 당 시 황해도에는 최소 2,700명 이상의 동학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입교연도	이름	주요경력	전거	비고	
道	江東	1886	襄雲翰	접주, 수접주	362	
		1892	嚴大根	접주, 수접주	363	
			玄基禎	수접주, 대접주	364	
		1894	金健五		361	
			李雲華	접주	362	
	平壤	1891	黃景植		396	
		1894	劉漢基	수접주, 대접주	396	
			染華國	수접주, 대접주	396	
	順川	1893	金達壁	봉훈	411	
	德川	1893	李成彬		506	
寧遠	1892	魯奉明		510		
平	寧邊	1894	張雲龍	수접주, 대접주	404	
	嘉山	1892	李奉道		142	
	泰川	1893	李祉球	수접주	527	
			李貞漸	대접주, 의창대령	527	
			李貞鳳	수접주, 대접주	527	李貞漸의 弟
李龍星			봉훈	527	李貞漸의 子	
李斗星		527	李貞漸의 子			
安	雲山	1894	尹基浩	수접주, 대접주	404	
	定州	1889	崔哲一	교훈	316	
		1891	孫炳燁		320	
		1894	玄夏屹	접주	303	
金承道			308			
北	宣川	1891	李義道	접주, 수접주	59	
			張濟桓	교훈	59	
		1894	車聖翁	접주, 수접주	58	
	龜城	1890	金斗興		214	
		1894	襄京喆	접주	243	
道	鐵山	1890	金致楨		234	
	昌城	1894	崔炳善	접주, 수접주	232	
	江界	1892	邊學經		48	

황해도 동학도 가운데 海州 서쪽 80리에 위치한 白雲洞 텃골(基洞) 출신으로 1892년 입교하여 1894년 8월에 接主가 되었던 金九는 그의 自敍傳에,

(1892년 : 필자주) 동학에 입도한 나는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 동시에 포덕에 힘을 썼다. ...이 모양으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섞어 전하여서 내 명성이 황해도 일대 뿐만 아니라, 멀리 평안남도에까지 현자하여서 당년에 내밀에 연비가 무려 수천에 달하였다.<sup>8)</sup>

라 있듯이, 1892년 경 평안남도 지역에 포교하고 있었다. 또 康翎의 동학도인 金裕永은 평안도 여러 지역의 동학포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899년에 작성된 ‘東學書式’에 따르면, 金裕永은 1893년에 입교하였던 龍岡 接主 洪基兆를 관할하는 都接主로 기재되어 있다.<sup>9)</sup> 그리고 1900년 1월에 작성된 ‘東學敬通文’에 따르면, 그가 1900년 초까지 泰川 首接主 李貞漸(1893년 입교), 寧邊 接主 康炳業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동학의 接組織體系는 布教關係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므로, 金裕永은 平安南道 龍岡과 平安北道 泰川, 寧邊 등의 지역에 포교하였거나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황해도 東學徒 鄭基南은 1894년 경 定州의 崔哲一, 玄夏屹 등에게 포교를 하였다.<sup>11)</sup>

8) 金九, “우리 집과 내 어릴 적”, 『白凡逸志』(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協會編, 1947), pp.29-30.

9) 驪江出版社,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 東學書, 1985, p.364.

10) 同上書, p.319의 1900년 1월에 작성된 敬通文에는 “西關已爲金裕永之布德 然似有衆人堪當之難 便以洪基兆大頭目出帖 而同心合力勸勉先生道法”이라 하여, 金裕永이 평안도지방의 동학포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 p.321의 1900년 1월에 작성된 다른 敬通文에는 “關北奚獨渠之布中 渠則已爲權定於黃海道 則北道何關於渠乎 蔽一言 洪基兆所布李貞漸·康炳業依前相從於洪基兆”이라 하여, 泰川의 李貞漸과 寧邊의 康炳業은 洪基兆가 포교하였지만 金裕永의 관할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金裕永이 關西大接主로서 그가 포교하였던 洪基兆와 洪基兆가 포교하였던 李貞漸·康炳業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奎章閣圖書 古 5125-4 非章訓學存案 2冊 光武 5년 2월 17일자 平安道 觀察使의 보고에 의하면, 金裕永은 關西大接主로 되어 있다.)

11) “天道教定州大教堂建築記”, 『新人間』109, 1937. 1, pp.52-53. 이 기록에 따르면 황해도인 鄭基南이 玄夏屹, 崔哲一 등에게 포교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앞

한편, 北接 계통의 강원도 동학도는 平安南道の 남동부 지역인 成川, 陽德 등지에 동학을 보급하였다. 이는 成川 지역 초기 동학입교자의 한 사람인 羅仁協의 예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그는 3·1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고 체포되어 일본당국의 取調를 받았다. 그 取調書에,

문; 피고는 어느때 천도교에 가입하였는가?

답; 25년 전(1894년; 필자주)에 가입하였다.

문; 피고는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천도교에 가입하였는가?

답; 江原道 原州 사는 金永碩의 권유로 가입하였다.<sup>12)</sup>

라고 있듯이, 강원도 原州에 사는 金永碩이 成川の 羅仁協에게 포교를 하였다 한다. 또한 金永碩은 1893년 11월에 입교하였던 陽德郡 九龍面 鳳溪里의 孫太龍에게도 포교를 하였다.<sup>13)</sup> 이처럼 成川, 陽德 등 평안남도의 남동부 지역은 北接 계통의 강원도 동학도를 통하여 동학이 전래되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폈듯이, 甲午東學農民運動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평안도 지방에 동학이 전해졌고 입교자가 있었다. 그렇지만 동학이 전래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아, 동학이 평안도 전역에 널리 전파될 수 없었고, 교도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동학도를 관리하는 接이 설치될 만큼 다수의 교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곳은 龍岡·江西와 江界 지역 정도였다.<sup>14)</sup> 龍岡·江西에 설치되어 있던 接은 北接의 관할로 黃海道人 金士永이 관리하고 있었고<sup>15)</sup>,

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崔哲一 玄夏屹은 1894년에 입교하였으므로 鄭基南이 평안북도 定州 지역에 동학을 보급하였던 것은 1894년, 혹은 그 직전이었다고 여겨진다.

12) 李炳憲 編, 『三·一運動秘史』(時事時報出版局, 1959), p.246.

13) 표영삼, “양덕군 천도교의 3·1운동”, 『新人間』 480, 1990. 3. p.246에 의하면, 孫太龍은 1893년 11월에 김영석을 통하여 입교하였다고 되어 있다.

14) 朴晶東, 『侍天教宗繹史』 제2편 下(侍天教本部, 1915), p.26에는 甲午東學農民運動 때 龍岡·江西와 江界에서 起包가 있었다고 써여져 있다. 이것으로 판단한다면 甲午東學農民運動 이전 이 두 지역에는 接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15) 同上. 金士永이 黃海道인이었음은 『天道教創建史』 제3편 제7장 p.48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용강·강서에 설치되었던 점이 북접의 지도를 받았음은 『朝鮮の類似宗教』 pp.52-54 를 통하여 알 수 있다.

江界의 接은 李白草가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sup>16)</sup> 이처럼 동학의 교세가 약하였고, 더욱이 北接 계통의 인물을 통해서 동학이 전해졌으므로 南接의 동학 지도자들에게는 평안도 지방에 동학이 전파되어 있던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예컨대 南接의 우두머리인 全璉準은 체포되어 재판관을 받던 1895년 2월 11일 그에게 행해진 訊問에 대한 대답에서,

問：東學八道皆傳布耶

答：五道則盡行教矣 西北三道則不知矣<sup>17)</sup>

라 하여, 5道 즉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京畿道, 江原道에는 전파되었으나 西北3道, 즉 黃海道, 平安道, 咸鏡道에는 동학이 전파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1894년 무렵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는 크게 신장되어 있지 못해 甲午東學農民運動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동학도들의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侍天教宗繹史』의 기록에,

又平安道 龍岡·江西等地教徒 金士永等…江界郡 李白草等 各議聚衆起包 旋即解散<sup>18)</sup>

이라 있듯이, 龍江·江西 지역에서 金士永 등이 起包하였고, 江界 지방에서는 李白草 등이 기포하였지만, 이들은 특별한 활동도 없이 곧 해산해버리고 말았다.

1894년에 일어난 甲午東學農民運動 때만 해도 평안도의 일부 지역, 소수의 사람에게만 수용되었던 동학이 평안도 전역에 걸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갑오동학농민운동 이후부터였다. 갑오동학농민군은 1894년 음력 9월 중순 제 2차로 봉기한 후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이 합세하여 10여만의 병력으로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였다. 그러나 論山에서 公州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牛金峙 전투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배한 이

16) 江界郡民會編, 『江界誌』, 1966, p.117.

17) 『全璉準供草』, 再招問目, 『東學亂記錄』下(國編, 1959), p.537.

18) 朴晶東, 『侍天教宗繹史』第2編 下(侍天教本部, 1915), p.26.

후 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일본군과 정부군의 추적을 당하면서 도망다녔다. 그리하여 결국 南接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金溝, 院坪까지 쫓겨가 지도층인 全琿準, 金德明, 崔慶善, 金開南 등이 淳昌과 泰仁에서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리고 북접의 동학농민군은 忠州에서 해산하였으며<sup>19)</sup> 그 지도층은 강원도의 麟蹄, 原州 등으로 도망다녀야 하였다.<sup>20)</sup> 이때 해산한 동학농민군 가운데 북접의 동학도 중 일부는 평안도 지방에 잠입하여 각지의 사람들에게 동학을 전파하였다.

光武 8년 6월 10일 平安南道 觀察使 李重夏가 올린 質稟書에,

本部(中和郡)東井三里居金永學叔至이 以東學魁首로 多聚徒黨에 收捧錢財하여 煽動民心... 金永學所供內 矣身이 去庚子年分 受道於慶尙道金益模處... 金益模 則居在慶尙道而兩西入道之人 則來往於矣家 故自爲都接主<sup>21)</sup>

라 있듯이, 경상도 동학도 金益模는 경상도에 살다가 평안도 中和 지역에 들어가 1900년 무렵부터 포교하며 都接主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또 全北 淳昌郡에 거주하였던 金萬斗도 甲午 이후 도피하여 평안도에 들어간 것이 『天道教會月報』에 보인다.<sup>22)</sup>

인접한 황해도의 동학도들도 평안도로 도피하였다. 이는 1894년 10월 2일 동학도 토벌에 나섰던 일본군 飯森少佐가 올린 “황해도의 동학도들이 평안도지방으로 도망하였다”.<sup>23)</sup> 는 보고로 알 수 있다. 이들은 단지 도망다니는데 그치지 않고 포교활동을 하였다. 갑오동학농민운동시 황해도 海州에서 기포하였던 金裕永<sup>24)</sup>은 1896년 2월 충주에 가서 李容九의 중개로

19) 李光鶴, 『韓國史講座』 V 近代編(一潮閣, 1981), pp.307-313.

20) 天道教中央總部, 『天道教會史』; 1920, 亞細亞文化社 編, 『東學思想資料集』 1, 1979, p.466.

21) 奎章閣圖書 17278, 『司法稟報』 甲, 92책; 亞細亞文化社 編, 『司法稟報』 1, 1989, 光武 8년 6월 10일 平安南道 觀察使 李重夏의 質稟書.

22) 崔圭弘, “故奉訓金萬斗略史”, 『天道教會月報』 90, 1918. 1, p.35.

23) 『日清戰爭實記』 42편, “海外時事”; 韓祐昉,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江原·黃海道の 경우-”, 『韓國史論』 4, 1978, p.397에서 재인용.

24) 天道教總部, 『天道教書』, 1920; 고대아세이문제연구소 편, 『亞細亞研究』 5, 1962, p.310.

崔時亨을 만난 후 關西地方의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sup>25)</sup> 특히 그는 갑오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이미 평안도에 포교하였던 것을 기반으로 삼아 평안남도의 龍岡과 평안북도의 泰川, 寧邊, 博川, 嘉山 등지에 동학을 普及하고 1900년 무렵에는 關西大接主로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또한 황해도인 鄭基明은 1898년·1899년·1900년 경 평안북도의 龜城·宣川 지역에 거주하는 韓應初, 金昌洛, 元宣吉 등에게 포교하였다.<sup>26)</sup> 그리고 文學洙(文貫一)는 文化 九月山 출신으로 평안북도의 順川, 介川, 泰川 등지에서 포교하였다.<sup>27)</sup>

일반 동학도 이외에 복첩의 지도적 인물들도 정부관리와 유생들의 탄압으로 충청, 경상, 경기, 강원, 전라도의 남부 지방에서의 포교활동이 곤란해지자 평안도에 도피하여 가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義菴孫秉熙傳記』의 1895년 기사를 보면,

다시 길을 떠나 평안도의 강계, 후창, 위원, 자성 등 압록강연변 일대와 함경도 지방인 장진, 그리고 韓·濟·露의 국경지방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며 보이지 않는 포교를 겸하면서 지내다가 돌아와서 해월선생에게 그 간의 경위를 보고하였다.<sup>28)</sup>

라고 있듯이, 孫秉熙는 평안도의 압록강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장사 겸 포교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 孫秉熙의 제자로 충주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李容九는 1895년과 1896년에 황해도의 文化 등지로 도망다니다가<sup>29)</sup>, 1897년에

25) 朴晶東, 『侍天教宗繹史』 2편 하, p.29. ; 주 10) 참조.

26) 亞細亞文化社 編, 『司法東報』 6, 光武 4년 11월 28일 平安北道 裁判所 判事 李道宰의 보고.

27) 朴衡采, “化菴文學洙紀蹟碑”, 『侍天教月報』 1권 2호, 1912.4, pp.38-39. 이 기록에 따르면, 文學洙는 1904년 진보회의 개혁운동시 价川에서 개최하였고 泰川의 개최식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公使館記錄』 1904, “陸海軍往復一進會”의 기록에 의하면 문학수는 11월 상순 경 順川의 진보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그의 포교지역은 順川, 价川, 泰川 등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28) 義菴孫秉熙先生紀念事業會, 『義菴孫秉熙先生傳記』, 1967, p.131.

29) 朴晶東, 『侍天教宗繹史』 3편 (侍天教本部, 1915), p.3.

평안도·함경도 지방의 포교에 힘을 기울였으니 『侍天教宗繹史』의

翌年丁酉(1897년) 公潛往平·咸兩道 另加布教 教徒增至七萬餘人<sup>30)</sup>

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북접의 지도적 인물과 각지의 일반동학도들이 평안도에 동학을 전파시키자 동학에 관심을 두었던 각 지역의 인물들 중에 정식으로 동학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龜城에서는 文仲乘, 文益賢 등이 동학에 대한 관심으로 東學呪文을 전해 듣고 이것을 외우며 지내다가 1898년 3월 정식으로 동학에 입교하였다.<sup>31)</sup> 雲山 지역에서도 李德善, 鄭思洪, 尹璘瑞, 朴士彦, 白雲行 등이 1898년에 동학을 받아들였다.<sup>32)</sup> 義州에서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1899년에 崔碩連, 吳明連, 安國鎮, 金倏興, 金重建 등이 본격적으로 동학을 수용하였고,<sup>33)</sup> 독자적으로 포교가 진행되었던 江界 지역도 1900년 경 李晶和, 韓龍海, 金斗淵이 金裕水, 姜서풍, 洪基德으로부터 동학을 수용하여 포교하였다.<sup>34)</sup>

각 지역에서 동학을 받아들였던 인물들은 입교한 데 그치지 않고 직접 北接의 지도부와 접촉을 갖고 동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포교활동을 해나갔다. 이러한 시도는 갑오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입교하였던 초기입교자들로부터 행해졌다. 평안도인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北接의 지도부와 직접 접촉하였던 인물은 龍岡의 洪基兆, 洪基億, 林復彦이었다. 洪基兆의 회고담에 의하면,

내가 처음으로 사문에 길을 열기는 지금으로부터 33년전 丙申年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설흔세살) ... 동행으로 말하면 중형되시는 홍기억(洪基億) 씨와 동덕 림복언(林復彦) 씨였습니다. ... 또 떠나서 그날밤 들게야 곤재장(昆在

30) 同上.

31) “天道教龜城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67, 1924. 8, pp.47-48.; 元明藩, “故教訓文益賢氏追悼文”, 『天道教會月報』 71, 1916.6, p.31.

32) “天道教雲山郡宗理院沿革實記”, 『天道教會月報』 175, 1925.4, p.39.

33) “天道教義州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61, 1924. 2, p.27.

34) “강계교구사”, 『新人間』 361, 1978.10, p.70.

場)터 사동(寺洞)에 계신 리종욱(現正菴李種勳氏) 집을 차저갔습니다. ... 십이월 초상에야 리종훈씨와 갖치 문경을 향하여 또 써냈습니다. ... 그리 하여 맛춤내 문경 은척원(聞慶銀尺院)에 니르러 남점주건칠(南建七)씨 인도로 그림고 그림든 해월신사와 의암성사 두본을 보엿습니다.<sup>35)</sup>

라 하여, 그는 洪基億, 林復彥과 함께 1896년 12월 (음력) 중순 경 崔時亨을 만났고 李種勳을 통하여 孫秉熙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洪基兆 등은 거의 두달 동안 최시형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가지 수도법절과 포덕방법을 배우다가 接主帖과 六任帖紙 100여매을 받아 가지고 丁酉년 2월 하순에 돌아갔다는 것이다.<sup>36)</sup>

洪基兆, 洪基億, 林復彥이 직접 북점의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한 후 1898년 3월에는 成川の 동학도인 羅龍煥, 羅仁協, 李斗珩이 최시형을 방문하였다. 이때 최시형은 이들에게 동학의 運이 북에 있으니 힘써 노력하라고 당부하였다 한다.<sup>37)</sup>

이들 외에도 평안도의 동학도 중 우두머리되는 인물들이 최시형과 접촉하여 任帖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天道敎書」중에,

(1987년) 7월에 黃·平 양도 두목이 포덕할 사로서 任帖 差出하심을 屢請한대 신사 遽히 許하시고, 그 任帖 중 北接法憲 4자를 龍潭淵源 4자로 개정하시다.<sup>38)</sup>

라는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任帖의 발급은 지목과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1897년 2월에 중지되었던 바 있었다.<sup>39)</sup> 그런데 평안도의 우두머리들이 任帖의 발급을 간청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당시 이 지방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자 북점의 지도부와 접촉하여 接主의 任帖을 받고 그 권위에 의거하여 포교를 본격화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

35) 洪基兆, "사문에 길을 열든 씨", 「新人間」, 29, 1928.11, p.38.

36) 同上書, p.39.

37)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天道敎中央宗理院, 1933) 海月神帥編, p.82.

38) 「天道敎書」, 「亞細亞研究」, 5, pp.312-313.

39) 同上書, p.312.

지 모르겠다.

그러면 1900년까지의 기간에 동학을 수용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은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각 지역에 동학을 수용할 때 공헌한 사람들을 <표 2>로,<sup>40)</sup> 이 중에서 약력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표 3>으로 작성하였다.

<표 2> 평안도지방 동학 수용의 주요 공헌자

지 역	인 물
平壤	劉漢基(1894, 대접주), 黃學道(1894, 대교구장)
鐵南浦	玄鎮健(1902)
大同	金承鎮(1900)
中和	林禮煥(1897, 의창대령), 林承泰(1897), 金永彥(1898), 元用高(1899), 車植模(1899), 朴承根(1900), 崔周憶.
龍岡	洪基兆(1893, 의창대령), 洪基億(1894, 의창대령), 胡瑛潭(1894), 金鐵坤(1894), 金泰麟(1894), 金學瓚(1894), 金致濬(1895), 申燾輝(1898), 金龍淵(1899), 高永漢(1899), 宋瓊百(1899), 安錫義(1899), 沈昌源(1899), 李泳業(1900),

40) 평안남도지편찬위원회, 『천도교』, 『평안남도지』, 1979. ; 박용삼, 『평안북도 주요인물』, 『신인간』 409, 1983.3, pp.62-68.  
 신인간편집실, 『강계교구사』, 『신인간』 361, 1978.10, pp.69-79. 이하는 『신인간』 생략; 신인간편집실, 『구성교구사』, 362·363, 1978.11·12, pp.48-55·60-66. ; 박창건, 『정주교구사』, 362·367·368, 1979.4·5·6, pp.72-80·pp.72-78·pp.60-67. ; 표영삼, 『맹산교구의 3·1운동』, 468, 1989.3, p.69. ; 표영삼, 『양덕군 천도교의 3·1운동』, 480, 1990.3, p.31.  
 이돈화, 『정주군교구실실기』, 『천도교회월보』 44, 1914.3, pp.4-9. 이하는 『천도교회월보』 생략; 이종린, 『천도교의주교구실기』, 52, 1914.11, pp.1-4. ; 고승명, 『평원군순안교구실실기』, 61, 1915.9, pp.32-35. ; 방정린, 『맹산군동면전교실기』, 124, 1920.12, p.104. ; 이관, 『천도교성천대교구성화실기』, 136, 1921.12, p.31. ; 이성삼, 『대동군시족면연화리전교실실축기』, 145, 1922.10, pp.78-79. ; 이취걸, 『원상원수산면전교실실축기』, 149, 1923.2, p.46. ; 『회천군종리원연혁실기』, 149, 1923.2, p.46. ; 『천도교의주종리원』, 161, 1924.2, pp.27-29. ; 『천도교중화군상원종리원』, 164, 1924.5, pp.31-33. ; 『천도교회천군종리원』, 165, 1924.6, pp.25-36. ; 『천도교강계종리원』, 166, 1924.7, pp.30-31. ; 『천도교구성군종리원』, 167, 1924.8, pp.47-49. ; 『천도교태천종리원』, 170, 1924.11, pp.33-36. ; 『천도교박천군종리원』, 173, 1925.2, pp.36-37. ; 『천도교윤산군종리원 연혁실기』, 175, 1925.4, pp.39-40. ; 『천도교용천군종리원』, 175, 1925.4, pp.41-46. ; 『천도교의주종리원』, 176, 1925.5, p.38. ; 『천도교진남포종리원』, 177, 1925.6, pp.30-31.

지역		인물
安	江西	林聖畧(1892, 수접주), 康正說(1893, 접주), 朴禧淳(1893, 수접주), 吳鐵聲(1893, 대접주), 李肯상(1893, 수접주), 金聖濤(1894, 수접주), 金泰麟(1894, 수접주), 韓相堯(1894, 수접주)
	平原	金光俊(1897), 金泓俊(1897), 金鳳文(1897), 金鼎烈(1897), 康極三(1899)
南	安州	李仲明(1895), 金案實(1900, 의창대령)
	价川	文學洙(?), 의창대령, 盧錫璣(?), 대접주
	順川	李璟觀(1899), 金錫龜(1899), 趙鏞漢(1899), 毛子均(1899), 金善吳(1899), 黃命珪(1900), 朴大淵(1900), 車喆洙(1900), 金基洙(1900)
	江東	裴雲翰(1886, 수접주), 嚴大根(1892, 수접주), 玄基禎(1892, 대접주)
	成川	羅龍煥(1894, 의창대령), 羅仁協(1894, 의창대령), 李斗珩
道	陽德	孫太龍(1897), 梁金濟(1898), 李昌煥(1899), 朴應模(1900), 金允實(1900)
	孟山	崔貞涉(1899), 朴明源(1900), 金利涉(1900), 朴準祺(1900)
	德川	劉承乾(1901), 劉承烈(1901), 玄基華(1901), 韓炳國(1901), 邊鴻起(1901), 趙永洙(1901), 金士民(1901)
	寧遠	金載義(1901), 朴永周(1901)
平	嘉山	安處欽, 周德仁
	博川	宋炳吉(1896, 대접주), 梁達川(1898, 대접주), 邊君恒(1898, 수접주), 李正鐵(1898, 수접주)
	寧邊	張雲龍(1894, 대접주), 金士彬(1895, 의창대령), 魯明俊(1899, 수접주)
	定州	李謙洙(1897, 의창대령), 金利學(1897, 대접주), 金孝宅(1897, 대접주), 金鎮八(1899, 대접주, 대교구장)
	郭山	李寅恒(1898, 대접주), 金起善(1898, 대접주), 申基柱(1899, 대접주)
安	宣川	金昌洛(1898, 의창대령), 桂翼濂(1899, 대접주)
	龜城	文益賢(1898, 교훈), 文仲承, 元致英(1898, 대접주, 교구장), 金鼎參(1899, 대접주), 元用樞(1899, 대접주), 元京贊(1899, 도훈), 李種秀(1900, 대접주, 대교구장), 全中信(1900, 의창대령)
	泰川	李貞鳳(1893, 대접주), 李貞漸(1893, 대접주), 李炳學(1895, 대접주)
雲山	尹基洗(1894, 대접주), 李德善, 鄭思洪, 尹璘瑞, 朴士彥, 白雲行	

지역	인물
北 道	熙川 崔洛京, 崔士岷(1895, 교훈), 張彥浩, 金鍾錄, 李鎮教, 李允道
	鐵山 崔永坤(1898, 수접주), 金龍雲(1900, 대접주), 張承官
	義州 崔頌連(1899, 대접주), 吳明運(1899), 朴禎茂(1900, 대접주), 安國鐵(1900, 대접주), 金俊興(1900, 대접주), 黃河湜(1900, 대접주), 崔頌燦(1900, 대접주), 金重健(1900, 대접주), 白仁彬(1901, 대접주), 崔安國(1901, 수접주)
	龍川 具克龍(1900, 대접주)
	朔州 朱昌健(1898, 대접주), 朴泰煥(1901, 대접주)
	昌城 姜昌善(1900, 수접주), 玄之誠(1900, 수접주), 文錫鏞(1902)
	碧潼 金允贊(1985, 접주), 康承龍(1899, 접주)
	楚山 金巨鎮(1901, 대접주)
	渭原 崔達漸(1902, 수접주), 崔殷徽(1902, 접주)
	江界 李晶和(1895, 교관장), 金斗淵, 韓龍海
	慈城 梁載學(1903, 접주)
	厚昌 胡凡龍(1901), 李文鎔(1902)

〈표 3〉을 보면 첫째,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양반이었다. 羅仁協은 羅州 羅氏 成川派의 18대손으로 그의 高祖인 羅東翰이 正祖 때 進士의 지위를 획득했던 양반이었다.<sup>41)</sup> 羅龍煥은 羅仁協과 같은 가문의 인물로 羅東翰은 그와 5대조에 해당되었다.<sup>42)</sup> 그는 서울에 올라가 科擧도 몇번 시도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훈장생활을 하며 지냈다. 洪基兆는 한학을 배우고 명필인 龍岡郡 吾新面 盧村의 盧玉琳으로부터 필법을 익힌 인물로 문탁한 양반인 洪景來의 후손이었다.<sup>43)</sup> 洪基德은 洪基兆의 從兄으로 그도 역시 양반이었다. 그리고 金中信, 韓錫泰, 崔弘湜도 그 지방 屈指의 名族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던 점으로 보아 양반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黃學道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18세때까지 한학을 배웠던 것

41) 羅庸根, 『羅州羅氏成川派譜』(중앙도서관소장, 1979).

42) 同上

43) 李炳憲 編, 『三一運動秘史』(時事時報出版局, 1959), p. 634의 좌측면.

<표 3> 평안도지방 동학수용의 주도층

번호	성명	출생지	생몰연대	(임포리나이) 입교년도	주요경력	신분	번부	교육	비고	견거
1	洪基永	湖南 吾新面	1865-1938	1893(28)	의창대령	양반(사인)	부 (거주)	학	洪家의 후손	경1100, 천59-42, 천126-21
2	洪基德	江西 咸陽面	1855-1937	1894(39)	수의창대령	양반(사·농)	부 (거주)	학	동기조의 중형	자10-162, 황301, 천118-33
3	金永彦	中和 東面	1856-1936	1896(40)	수의창대령	(사·농)	부 (거주)	학		자10-192, 천299-57
4	金永彦	中和 神元面	1864-1936	1894(30)	의창대령	양반(사농장)	부 (거주)	학		경503, 천210, 천25-33
5	金仁島	咸川 龜山面	1870-1951	1894(22)	수의창대령	양반(사인)	부 (거주)	학		황545, 천239, 천61-41-42
6	金斗屹	平 瑞	1870-1927	1899(29)	수의창대령		부 (거주)	학		천218-28
7	吳基淵	平 瑞	1867-?		수의창대령		민	漢文 儒학		자10-163-193
8	朴基煥	平 瑞	1865-1949	1898(33)	의창대령		민	儒학		경938, 천63-39, 삼-405
9	林基煥	平 瑞	1879-1916	1900(21)	대의창대령	양반(사인)	민	한학(-18세)		천57-28-29-30
10	洪基興	江東 馬山面	1860-1917	1899(39)	수의창대령		민	한학(-18세)		천91-43-44
11	洪基興	江東 高島面	1881-?	1900(19)	대의창대령		부 (거주)	(부) 稻田大卒		자9-354, 자10-207
12	鄭元龍	咸川 魯谷川面		1940	대의창대령		부 (거주)	한학(8-15)		천102-65-66
13	李炳燾	安 家	1877-1930	1897(20)	도의창대령		민	한학(8-15)		천54-37
14	李炳燾	安州 龜花面	1863-1923	1897(34)	수의창대령		민	한문 漢學		천158-54
15	崔士俊	神州 神州面	1864-	1895(31)	수의창대령	(농부)	부 (거주)	학		천89-35
16	李炳燾	奉川 鄆北 面	1875-1916	1898(23)	수의창대령		민	한		천19-35-36
17	李炳燾	奉川 鄆院 面	1853-1917	1898(45)	수의창대령		민	한		천31-31-32
18	文廷賢	龜城 鄆南 面	1839-1913	1898(49)	수의창대령		민	한		천121-110
19	元聖美	龜城 鄆南 面	1866-1920	1894(28)	수의창대령		민	한		천57-40-41
20	金中昭	咸川 鄆宜川面	1868-1911	1900(32)	부의창대령	양반 鄆南名族	중 (500원)	한문 초해		자10-165-196
21	鄭基善	龜山 鄆丁基面	1874	1900(34)	부의창대령	평민	민	한문 초해		천79-35
22	鄭基善	龜山 鄆丁基面	1866-1917	1897(30)	부의창대령	양반 鄆南名族	민	한학(8-17)		천46-28-29
23	鄭基善	定州 鄆西 面	1883-1914	1899(16)	수의창대령	양반 鄆南名族	민	한학(8-17)		천108-45
24	李炳燾	無 州	1862-1918	1898(36)	수의창대령		민	한학(8-17)		천123-32
25	金仲興	義 州	1870-1938	1900(30)	수의창대령		민	한학(8-17)		자10-171, 천48-63
26	金仲興	義 州 古嶺面	1869-1930	1899(31)	수의창대령		민	한학(8-17)		천127-32
27	洪基運	義 州	1879-1938	1899(20)	수의창대령		부 (거주)	학		천71-32-33
28	洪基運	義 州 水原面	1851-1916	1900(49)	수의창대령	양반 鄆南名族	부 (거주)	학		천77-36
29	鄭元龍	龜城 鄆大基面	1873-1916	1900(27)	대의창대령		민	한		천199-32
30	金仲興	江 界	1876-1926	1896(20)	대의창대령		민	한		자10-121
31	李炳燾	江界 鄆江東面	1868-1926	1895(27)	대의창대령	(中軍將)	민	한		천82-41-42
32	金洪燾	龜山 鄆古面	1845-1915	1900(56)	대의창대령		민	한		

\* 동 : 國家報勳處, \* 獨立有功者勳勳處, 1986-88.  
 차 : 國民報勳委員會, 『國民報勳立運動史料集』, 1989.  
 삼 : 李炳燾, 『三一運動秘史』, 1959.  
 창 : 天道敎中央宗會總, 『天道敎朝報』, 1934.  
 성 : 『天道敎會月報』.  
 신 : 『新人間』.

\* 이 자료 외에 홍기조의 증손인 洪家德, 라인철의 손자인 羅一燾, 라우환의 아들인 羅奎德, 임태환의 증손인 林顯燾, 최석권의 아들인 최명규씨의 증언을 참고하였다.

로 판단하면 양반이 아니었나 한다. 金永彦, 林禮煥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농사를 짓기도 하였으나 한학을 배웠던 점으로 보아 黃學道와 유사한 신분의 사람처럼 보인다. 金洛濂은 신분이 양반이었는지 자세하지 않으나 中軍將을 지냈던 하급관리 출신이었다.

둘째, 경제적으로 지주인 富農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洪基兆, 金永彦, 羅仁協, 羅龍煥, 崔頌連, 黃錫翹는 부유한 지주였다. 또 泰川의 李炳瑀도 1902년 교세의 신장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을 때 거금 1,000여원을 출연할 수 있었던 부농이었다. 그리고 <표 3>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泰川의 周啓喆, 周德仁, 李寅祚, 李震暉, 李炳學, 朴昌根도 1,000여원을 출연할 수 있었던 부농이었으며,<sup>44)</sup> 義州의 安國鎮, 崔安國, 崔汝謙, 白義亨도 1902년 10,000여원을 출연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였다.<sup>45)</sup> 그리고 吳榮昌, 林禮煥, 韓錫泰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되어 있으나 한학을 배울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極貧한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자립적인 小農 정도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듯 평안도 동학수용 주도층의 경제적 상태는 부농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sup>46)</sup>

셋째, 전통적인 漢學을 배운 지식인이 많았다. 평안도인 중 상공업자나 개화사상에 관심을 가졌던 지식인층이 개신교에 호감을 가졌던 반면에<sup>47)</sup> 전통적인 한학을 배운 농촌의 지식인 중 일부는 동학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守心正氣와 誠·敬·信을 행동강령으로 하는 동학사상과 이들이 배웠던 儒學 사이에 상통하는 점이 많았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네째, 입교 당시 대다수가 20대 혹은 30대였다. 즉 이들은 정치·사회적 부패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장년층이었다.

44) “天道教泰川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70, 1924.11, p.33.

45) “天道教義州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61, 1924.2, p.27.

46) 趙景達, “東學農民運動と甲午農民戰爭の歴史的 성격”,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9집, 1982, pp.128-130. 저자는 南接이 빈농층에 기반을 두었고 北接이 부농층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평안도지방 동학지도층의 경제적 상태는 북접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47) 李基白, 『韓國史新論』 新修版(一潮閣, 1990), p.426.

이러한 성격을 가진 동학수용의 주도층들은 ‘避亂’, ‘避病’ 과 같은 현세 구복적인 필요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동학에 입교하였던 듯하다. 羅龍煥의 회고담에 의하면,

아무리 문필이 능한 자라도 下鄕 더구나 平安道 농이라면 어렵도 업섯습니다. 여  
기서 크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 科擧는 단념하고 불평은 그대로 잇고 방향은 정치  
못하얏스니 나에게 煩悶苦痛이 잇지 안켓습닛가. 사망으로 處世의 道를 구하는 중  
인데 癸巳年 十一月엔가 맞춤 寧邊 사는 高化景이란 동학군을 成川 鄕里에서 우연  
히 만나게 되야 동학의 來歷을 대강 듯고 呪文과 東經大全 한 책을 엇게 되얏습니  
다. 東經大全을 보닛가 그 중에는 無窮造化의 설이 잇고 또한 布德天下廣濟蒼生의  
구가 있습니다. 당장에 “야 이것은 실로 유교보다 크구나!” 하고 일대 흥미를 가지  
고 동경대전을 연구하얏습니다. 그러다가 甲午年 四月十五日에 東經大全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 自入道를 하고 煉性煉心에 전력하얏습니다.<sup>48)</sup>

라고 있듯이, 그는 평안도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할 수 없는 데 대하  
여 불평을 갖고 있었다. 그때 인내천의 평등사상을 가진 동학의 내력을 전  
해듣고 동학에 입교하였던 것이다. 평안도인들이 科擧 및 出仕 등에서 차  
별대우를 받아왔음은 1811년 몰락양반이었던 洪景來, 禹君則, 金士用 등과  
부농으로 성장한 계층 및 私商들이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洪景來의 亂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홍경래의 亂 이후에도 평안  
도인에 대한 차별대우는 시정되지 않았고 이것에 불평을 가졌던 지식인 중  
일부는 평등사상을 갖고 있었던 동학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의  
經典에는 “富하고 貴한 사람 이전 시절 貧賤이요, 貧하고 賤한 사람 오는  
시절 富貴로세”<sup>49)</sup> 라는 내용이 있어, 관리로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평안도  
지식인층에게 동학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경전  
에는 “下元甲 지내거든 上元甲 호시절에 만고 없는 無極大道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도 또한 年淺해서 億兆蒼生 많은 백성 太平曲 擊壤歌를 불구에  
불 것이니”<sup>50)</sup> 라는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도

48) 羅龍煥, “내가 入道하는 그제”, 『新人間』 34, 1929.4, p.24.

49) 『용담유사』, “교훈가”.

50)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담가”.

있어 당시의 사회에 불만을 가졌던 평안도 지방의 동학 수용자들을 유혹시킬 만한 점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동학에 입교하였다고 여겨진다.

### Ⅲ. 東學教勢의 伸張

동학수용의 주도층은 주로 유학을 배운 양반이었으나 지방차별 때문에 관리로 진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지역에서도 齎任·校任 등의 지위마저도 얻기가 여의치 않았던 인물들이었다. 다시말해 이들은 소외받는 농촌의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지방차별을 일삼고 身分秩序의 遵守를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동학의 포교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즉 이들은 동학의 도를 많은 백성에게 전파하여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는 잘못된 윤리와 사상을 바꿈으로써 지상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던 듯하다.<sup>51)</sup> 이는 1903년에 입교하였던 定州 출신 春園 李光洙의 회고담에,

그때 나는 우연히 承氏라는 동학당원을 만나 동교의 설명을 들었지요 선천 5만년이니 후천 5만년이니 하는 설교를 듣고는 매우 구수한 듯하여 곧 입도하였습니다.<sup>52)</sup>

라고 있듯이, 동학의 지도자가 동학이 유행하는 後天 5만년의 시대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이야기로 동학을 포교하고 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3·1운동 후 일본당국에 검거되었던 羅龍煥의 「訊問調書」에,

문 : 피고는 어떠한 신앙으로 천도교에 가입하였는가?

51) 金庠基, “東學의 概念”, 『東學과 東學亂』 春秋文庫2(韓國日報社, 1975), pp.63-68. 저자는 동학이 교화적 방법에 의해 지상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52) 李光洙, “나의 40만생기”, 『신인문학』, 1935, p.17; 金允植, 『李光洙와 그의 時代』 권1, p.79.에서 재인용.

담 : 천도교의 교리는 布德天下 廣濟蒼生이라고 하므로 그것을 믿고 가입하였다.<sup>53)</sup>

라고 있듯이, 동학 수용의 주도층이 동학을 포교하여 당시 사회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을 구제하는데 관심을 두었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학 수용자들은 관리들의 검거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학포교에 열심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동학 수용자들은 각 지역별로 포교를 확대하였는데 아래에 제시하려는 사람들의 활약이 특별히 두드러졌다. 成川의 羅龍煥과 羅仁協은 成川, 江東, 陽德 등지의 포교에 힘썼다. 그 결과 羅龍煥은 中和郡의 접주로 임명된 지 2년 만인 1899년에 교도 1,000여명을 관리하는 평안도 大接主로 임명되었으며,<sup>54)</sup> 1903·4년 경 교도 10,000여명을 관리하는 義昌大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羅仁協도 大接主를 거쳐 1903년 음력 2월 義昌大領에 任命되었다.<sup>55)</sup> 順川, 价川, 安州 등지의 포교에 기여하였던 인물은 황해도 文化 출신인 文學洙였다. 그가 라인협과 같은 시기에 義昌大領에 임명되었던 사실로 그의 활약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sup>56)</sup> 평안북도의 태천, 영변, 박천 등지에서 포교하였던 인물은 용강의 洪基兆와 洪基億이었다. 이들은 1896년 말 최시형을 방문하여 接主의 任帖을 받은 후, 황해도 康翎 출신인 金裕永의 관할 하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sup>57)</sup> 이 활동에 힘입어 이들은 接主로 임명된 지 4년 만인 1900년에 平安道 大接主로 임명되었다.<sup>58)</sup> 1901년 경 이들의 관할 하에는 교도 500명 정도를 거느린 泰川 首接主 李貞漸, 교도 200여명을 거느린 寧邊 接主 康聖澤·朴枝華, 博川 接主 高江奉 등이 있었다.<sup>59)</sup> 定州의 李謙洙는 定州, 龜城 등지에서 포교에서 힘쓴 결과 1899년 경에는

53) 李炳憲 編, 『三一運動秘史』, p.232.

54) “萬事知의 羅龍煥氏”, 『新人間』 21, 1928.2, p.46.

55) 天道敎史編纂委員會, 『天道敎百年略史』上(天道敎中央總部, 1981), p.337.

56) 同上.

57) 驪江出版社 編,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東學書, 1985, p.319. ; 주 3) 참조.

58) 同上.

59) 奎章閣圖書 古5125-4, 『非章訓學存案』 2책, 光武 5년 2월 17일 平安道 觀察使의 보고서. ; 同書, 同冊 光武 5년 3월 21일의 平安道 裁判事의 보고서.

平安道 都接主(大接主의 동일)로 활동하고 있었다.<sup>60)</sup> 그리고 義州의 崔頌連, 吳明運 등은 1899년에 입교한 후 변방의 혼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義州, 龍川 등의 지역에 동학을 普及하였다.<sup>61)</sup>

동학 수용자들은 포교할 때 동학의 入乃天(事人如天, 人是天) 사상, 즉 平等思想을 설명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지역차별을 받아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평안도인들을 매혹시킬 만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평안도인들이 평등사상에 매료되었음은 四民平等을 강조한 개신교가 평안도지방에서 성행하였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평안도지방에는 兩班官僚層이 적어 儒風이 약하였고, 班常과 上下의 身分秩序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한다.<sup>62)</sup> 그런데 光武 4년 8월 25일 평안도 察邊使 兼 觀察使가 21개 군수에게 내린 訓諭에,

近日儒風衰微 鄉俗頹敗 法網澆喪 名分紊亂 ··· 以下犯上 以少凌長 甚至詬辱毆打<sup>63)</sup>

라고 있듯이, 1900년 경에는 儒風이 더욱 무너져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범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업신여길 정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였으므로 평안도인들은 동학의 평등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덜하지 않았나 한다.

또 동학 수용자들은 동학이 나타나는 後天開闢의 시대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말로 일반인을 유혹하기도 하였다.<sup>64)</sup> 그리고 동학경전에 있는 현세구복적인 요소를 강조하기도 하였던 듯하다. 이는 光武 5년 2월 7일 평안도 觀察使가 관하 21곳의 군수에게 내린 告示文에,

60) “天道敎定州大敎堂建築記”, 『新人間』109, 1937.1, p.53.

61) “天道敎義州宗理院”, 『天道敎會月報』161, 1924.2, p.27.

62) 李光麟,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敎”,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p. 251.

63) 奎章閣圖書 古5125-4, 『非章訓學存案』4책, 光武 4년 9월 25일의 平安道 察邊使 兼 觀察使의 훈령.

64) 주 52)와 同.

今其妖言에 曰 入吾道者는 可以避亂이라 하니 ... 今其妖言曰 \*呪者는 疾病을 可免  
이오 刀銃을 可避라 하니 ... 且云侍天主者는 農穀이 大豐이라 하니<sup>65)</sup>

라 있듯이, 동학에 입도하면 어려움과 전쟁의 위협을 면하게 해주며, 농사의 풍년을 가능하게 해주고, 질병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을 믿고 동학에 입교하였다. 1900년 10월 宣川에서 체포된 元宜吉은 동학을 믿으면 질병을 물리치고 목숨을 연장하며 일생을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동학에 입교하였고, 선천의 吳致德은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동학을 믿었으며, 선천의 李元善은 無病延壽 이외에도 자식을 갖게 해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01년 2월 寧邊에서 체포되었던 康炳業은 병을 제거하여 주고 농업과 축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으며, 朴種根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며 집안을 길하게 해준다고 하여 동학을 믿었다고 하였다.<sup>66)</sup>

평안도지방 동학 수용자들의 포교노력에 짝하여 동학 지도부도 指揮·統制와 布教組織 정비를 통해 포교확대를 지원하였다. 『天道敎創建史』 중에,

平安道 道人 羅龍煥·羅仁協·李斗珩等이 來謁한대 神師(崔時亨) | 義誓으로 하여금 說諭하야 같으되 “내 일즉 吾道의 運이 北에 在하다 屢言하였거니와 이제 諸君을 보니 道運이 장차 北에 있음을 아노니 諸君은 勉勵하라” 하시더니<sup>67)</sup>

라고 있듯이, 북점지도부는 평안도지방의 포교에 관심을 두어왔다. 북점지도부의 인물 중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하였던 사람은 李容九였다. 그는 1897년 경부터 평안도지방의 동학포교에 심혈을 기울였고<sup>68)</sup> 최시형이 죽은 후에는 孫秉熙의 명에 따라 北三道便儀司가 되어 황해, 함경도와 평안도

65) 奎章閣圖書 古5125-4 『非章訓學存案』 5책 光武 5년 2월의 평안도 觀察使의 고시.

66) 奎章閣圖書 古5125-4, 『非章訓學存案』 1책, 光武 4년 12월 28일 平安道 裁判所 判事의 보고서; 동 2책 光武 5년 2월 17일 平安北道 觀察使의 보고서.

67) 李敦化, 『天道敎創建史』(天道敎中央總部, 1933), 제2권, p.83.

68) 주 29)와 同.

지방의 조직 정비에 힘썼다.<sup>69)</sup> 특히, 그는 孫天民과 巡接主 孫秉欽과 함께 손병희를 道統傳受者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懷柔하여 손병희 지도 체제를 따르도록 하였다.<sup>70)</sup>

그리고 孫秉熙도 일본에 外遊하였던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도의 동학교세 확장을 위하여 힘썼다. 그는 1901년 9월 일본에서 귀국한 후 특별히 朴寅浩와 金箕培를 關西에 보내 교세를 확장하게 하였다.<sup>71)</sup> 이러한 지시에 따라 평안도의 각 지역에서는 포교를 위한 활동이 행해졌으니 “天道教義州宗理院”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포덕사십삼년(1902년) 壬寅 교회를 확장키 위하여 성금을 출연할 시이다. 安國 鎭, 崔安國, 崔汝謙, 白義亨 四氏는 전래의 世業을 一傾하여 각히 만여원을 출하다.<sup>72)</sup>

라고 하여, 1902년에 의주 지역에서 교세 확장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교활동은 泰川과 熙川 지역에서도 있었다. 泰川에서는 1902년 동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周啓喆, 周德仁, 李寅祚, 李震暉, 李炳瑀, 李炳學, 朴昌根 등 여러 사람이 世傳의 사업을 기울여 각기 천여원을 출연하였고,<sup>73)</sup> 熙川 지역의 경우는 1902년 포교 호수가 크게 급증한 사실로 미루어 그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sup>74)</sup>

한편, 동학 지도부는 평안도 지방의 교세 신장에 따라 포교조직을 정비하였다. 1896년 평안도인에게 接主(교도 100여명을 관리)를 임명한 이후<sup>75)</sup>, 1899년 경에는 首接主(교도 500여명을 관리)·大接主(교도 1,000여명을 관리)를 두었으며<sup>76)</sup>, 1903년 2월에는 교도 10,000여명을 관리하는 義昌

69) 驪江出版社, 『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 東學書, 1985, p.321.

70) 同上書, p.320. 1900년 1월 北接 聖道主 松菴(孫天民)의 敬通; p.342. 1900년 2월 奉分付巡接主孫秉欽·李萬植謹通.

71) 李敦化, 『天道教創建史』3권(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p.29-30.

72) “天道教義州宗理院”, 『天道教會月報』161, 1924.2, pp.27-28.

73) “天道教泰川宗理院”, 『天道教會月報』170, 1924.11, p.33.

74) “熙川宗理院沿革及新築狀況”, 『天道教會月報』149, 1923.2, p.50.

75) 주 36)과 同.

76) 주 54)와 55) 참조.

大領을 두었다.<sup>77)</sup> 그리고 北三道便義司 혹은 水滄大領(교도 100,000여명을 관리)의 직함을 가졌던 이용구에게 각 우두머리를 지휘·통제하게 하였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의 핵심 인물인 道師에게 巡接主의 직함을 주고 평안도에 파견시켜 각 接의 우두머리를 지휘·통제하도록 하였다.<sup>78)</sup>

동학 수용자들의 포교활동과 중앙지도부의 지휘·통제와 조직정비활동에 힘입어 평안도 지방의 동학교세는 크게 신장되었다. 동학교세의 發展推移는 『天道敎創建錄』에 나타난 평안도 출신 동학도들의 입교추세를 살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평안도 출신 동학도들의 입교추세는 다음의 <표 4>·<표 5>와 같다.<sup>79)</sup>

이 표들에 의하면, 동학도들의 입교자수는 1886년 이후로 1894년까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갑오동학농민운동 후인 1895년과 1896년에는 입교자수가 정체 또는 감소되었다. 甲午東學農民運動 후 관리의 감시 및 검거로 포교활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897년에는 동학에 입교하는 사람의 수가 다시 늘어나 1898년-1899년에 걸쳐 입교자수가 점차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관리들의 감시가 완화된 탓이기도 하였으나 평안도 출신 동학도들이 北接의 지도부와 접촉하여 동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후 포교활동에 힘썼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기간에는 평안남도가 북도보다 입교자수가 많았는데 이는 동학이 남에서 전래되었으므로 평남이 평북보다 전교의 시기가 앞섰기 때문이었다. 이점은 평안 북도 薺山, 渭原, 慈城, 厚昌의 압록강 연변 지역에 입교자가 없었던 것과 1905년 무렵 입교자수가 가장 많았던 義州 지역에 교도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사실로 알 수 있다. 도별로는 평안남도에는 成川, 安州, 江東이 평북에는 定州, 泰川, 嘉山, 龜城이 입교자수가 많았다. 이 지역들은 안주를 제외한다면 갑오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이미 동학이 전래되어 있던 곳이었다. 안주에 입교자가 많았던 것은 황해도인 文學洙의 포교활동에 의한 것이었

77) 주 55) 참조.

78) 주 70)과 同.

79) 李敎化, 『天道敎創建錄』(天道敎中央宗理院, 1934)에 의하여 작성.

<표 4> 평안남도지방 동학입교 추세

年度·地名	鎮南浦	江西	龍岡	中和	祥原	三登	大同	平壤	平原	江萊	成川	鐵川	安州	价川	陽德	德川	孟山	寧邊	慈山	殷山	順川	계
1886										1												1
1889											1											1
1890																						
1891							1															1
1892		1								2	1							1				5
1893		5	3								1				1						1	11
1894		3	5				3			2	5											18
1895		1	1				1			1	2		1				1					8
1896							2			2	2				1							3
1897				2		2	2	2	2	2	2				2		2				1	20
1898				1	1	1			3	1	11		7		1	1					1	27
1899		4	5	2		9	9		9	3	9	18	9	7	9	3	2	1	1	3	8	102
1900		1	1	2	1	2	1	15	3	10	14	1	12	7	15	6	23	7	1	6	29	157
1901		3	1	4	4	3	11	24	7	15	20	2	7	24	33	32	24	14	1	2	21	252
1902	1	15	14	6	12	22	36	7	36	23			23	9	18	12	8	13	5	2	22	284
1903	4	21	19		10	1	9	20	1	20	35		30	24	25	6	7	4	11	4	13	264
1904	1	7	12		4	3	1	7	5	10	8		12	5	6	4	10		3	7	9	114
1905		2	1	1	1	2	1	1	1	4	3			1	2	2			1	3	3	25
1906			1			1	1	3	3	2	7		1	3	1				1	2	2	26
1907		1	6			1	1	1	3	1	3		4	4	3		1	1	1	1	1	32
1908	2		3			2	2	1	2	3	3		3	1	3	1	1	4	2	2	4	36
1909		7	10	1	5	3		6	7	7	9		4	11	6	5	11		1	2	7	102
1910	1	2	9	1	2		1	10	11	14	8		5	2	5	1	5	1		1	9	88
합계	9	73	91	19	40	28	50	142	60	139	174	3	118	98	128	74	97	46	25	32	131	1,577

< 표 5 > 평안북도지방 동학임교 추세

年度·地名	嘉山	博川	寧邊	定州	郭山	宣川	龜城	泰川	雲山	熙川	鐵山	義州	龍川	朔州	昌城	碧潼	楚山	渭原	江界	慈城	厚昌	계
1886																						1
1889			1																			2
1890				1			1				1											3
1891					2														1			2
1892	1																					5
1893								5														7
1894			1	2		1			1						1							8
1895								2				1							2			3
1896		1	1																			8
1897			2	2		1	1					2										45
1898	9	5	4	4	4	2	2	2		1	5	4	1	1	1							93
1899	9	7	3	14	5	2	13	17	2		3	7	2	4	3	2						262
1900	17	4	3	37	11	4	69	50	1	3	18	18	7	4	9	2	1		3	1		274
1901	18	3	20	26	16	5	52	19	5	16	4	44	9	10	6	8	4		8			647
1902	12	8	20	48	13	26	104	21		56	17	173	38	22	11	47	9	2	18			864
1903	7	1	17	75	10	42	98	33	2	29	35	200	69	102	62	53	9		18	1		210
1094	6		3	22	3	3	27	8		8	6	43	6	41	12	18	2		1			41
1905			2	2			8	1	1	1	1	9	2	4	2	7						47
1906			1	1	2		4	3		3	5	13	3	2	1	7			1	1		53
1907			1	1	2		5	5		1	4	23		2	2	3	2		2			56
1908			1	2		3	5	5	3	1	1	11	3	10	3	7			1			96
1909	3	3	3	8		6	19	6	2	2	1	29	2	5	1	5						86
1910	1	1	1	7	1	5	12	7		3	2	36	1	1	1	3	1		2			2,813
합계	83	33	83	254	67	102	421	184	17	124	103	613	143	208	115	165	28	2	57	2	9	

다고 여겨진다.

1897년부터 1899년까지의 교세신장에 힘입어 1900년 무렵 평안도 지방에는 상당수의 동학도가 존재하게 되었던 듯하다. 1900년 9월 10일 미국선교사 마펫(馬布三悅, S. Moffet)이 미국 공사 알렌(安連, H. Allen)에게 보고한 기록에 따르면,

변방인 義州·龜城·龍川 등 각군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負商輩과 東學徒가 10월에 함께 봉기하여 기독교와 외국인을 屠戮할 것이라 한다. 동학은 변계에서 더욱 치성하다.<sup>80)</sup>

라고 하여, 동학은 義州, 龍川, 龜城 등 邊界에서 더욱 치성하였고, 심지어 負商輩와 함께 기독교도 및 외국인을 공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였다.

동학도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官에서는 동학교세의 擴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학도를 檢擧하여 이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1900년 10월 義州 鎭衛隊는 평안북도 龜城, 宣川의 교도인 吳亨甲, 元錫仁, 吳利甲, 吾玄木, 吳玄瑞, 劉利宅, 元宜吉, 吳致德, 李元善 등을 체포하였다. 그 가운데 吳利甲, 吳玄木, 吳玄瑞, 劉利宅 등은 放免되었으나, 元宜吉, 吳致德, 李元善은 呪冊을 갖고 있어 각기 笞一百 懲役終身, 笞一百 懲役十年, 笞一百 懲役十年의 형에 처해졌다.<sup>81)</sup> 또한 1901년 2월에는 평안북도 泰川, 寧邊, 博川의 동학 接主 및 教徒들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인물은 寧邊 接主 康聖澤(47)과 그의 삼촌으로 通文의 수발을 담당하였던 康炳業(59), 朴種根(21), 泰川 首接主 李貞漸의 아들인 李龍星과 康聖澤 관하의 일반교도였다. 康聖澤은 大明律 '禁止師巫邪術條'에 의거하여, 絞刑에 처해졌고, 康炳業과 朴種根은 笞一百 懲役十年의 형에 처해졌다.<sup>82)</sup>

80) 『舊韓國外交文書』美安3(高大出版部 編, 1967), “모페드보고”, pp.14-15.

81) 亞細亞文化社 編, 『司法稟報』6, 光武 4년 11월 28일 平安北道 裁判所 判事 李道宰의 보고.

82) 奎章閣圖書 古5125-4, 『非章訓學存案』2책, 光武 5년 2월 17일 平安道 觀察使의 보고서와 同年 3월 21일의 平安道 裁判所 判事의 보고.

이러한 검거와 아울러, 平安道 觀察使는 光武 5년 2월 7일 동학교세의 입장을 막기 위해 管下 21개 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訓令을 내렸다.

一. 各面里 申明五家統法 擇定統首 使之糾察 統內如有誦呪者 爲先嚴禁止 不悛者 告官嚴懲是矣 如或掩覆不告者 該統首嚴繩爲旃 若一統盡爲染邪 則隣統摘發告官是違 統內若有殊常之人 潛行傳教 則卽爲結縛以爲報府嚴處事.

一. 邪魁之名以接主者 密探跟捕以爲押上嚴處是違 其愚氓之暫被誣誤者 笞罰曉諭而放逐 許其改過是旃 見此告示後 幡然開悟呈官背道納其東學文字者 勿爲治罪 許其自新事

一. 官屬輩之藉托禁邪 潛行村里 威脅討索者 一并嚴處事<sup>83)</sup>

요컨대 이것은 五家作統法으로 동학교를 감시 고발하게 하여 동학의 확대를 막으라는 訓令 및 이와 관련된 지시였다.

그렇지만 이 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같다. 앞의 <표 4>·<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1901년에서 1904년에 걸쳐 入教者數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여 준다. 이 기간에 입교자수가 이렇게 증가하였던 것은 평안도지방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관련이 있었다. 『皇城新聞』 光武 8년 3월 4일자 “鳴平西北之民”이라는 논설에,

凡我籍之民이 一則疾病於貪虐官吏之侵漁剝割하고 一則困瘁於饑饉盜賊之流離劫擄해야 到處一般이오 無上不然이로되 惟獨西北諸路之民은 재經日淸之兵禍하고 數被胡匪之侵擾해야 十室九空에 瘡痍未蘇라. 平安一道난 又因鄉錄之排敵해야 富戶貧氓이 具凋弊矣러니 今年에 又值日俄之交戰해야 騷擾洩敵에 漁駭鳥竄이라 … 近日 西土守令이 或有被拘而逃避者하며 或有請願而圖免者해야 紛紛然 惟事厭避하니 噫라

고 있듯이, 서북지방은 1900년 이후 胡匪의 침입 즉, 1900년 여름 중국에서 발생한 義和團亂 이후 중국인의 침입을 겪어 집집마다 거의 빈 상태에 놓여 있었고, 특히 평안도지방은 지방관리들의 擄取와 1904년 2월 4일에 개전된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곤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83) 同上書 5책, 光武 5년 2월 7일자 平安道 觀察使의 훈령.

이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1901년 慈城, 江界, 渭原, 楚山 등 평안도의 북부 지역에서 民擾가 발생하였고, 1903년에는 昌城에서 民擾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 평안도지방에서 발생하였던 民擾發生數는 타지방보다 많았다.<sup>84)</sup> 또한 1902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는데 평안도 義州에서 鎮南浦에 이르는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sup>85)</sup> 이처럼 이 시기 평안도지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평안도인들은 이러한 곤란을 해결해 준다고 하였던 동학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물론 개신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는 있었지만 선교사들은反그리스도교적 운동이었던 義和團亂의 여파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1900년에서 1905년까지 포교활동을 자제하였다.<sup>86)</sup> 반면에 동학 지도부는 1902년 손병희의 지시로 대대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제 요인 때문에 이 시기 평안도지방의 동학입교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1901년에 1904년까지의 기간에는 혼란을 겪었던 평안북도가 남도보다 입교자수가 많았는데 특히 義州, 朔州, 龍川 지역의 입교자수가 많았다. 그리고 平壤, 義州의 도시 지역에도 입교자수가 많았는데, 이는 義和團亂, 러·일전쟁으로 인한 통치질서의 문란 때문에 동학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져, 도시 지역에도 포교가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교세가 신장되어 1903년 무렵이면 평안도의 동학교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되었다. 즉 1903년 2월 동학교단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大頭領制를 실시하고 10,000여명의 長에 해당하는 4명의 義昌大領을 임명하였을때, 그 중 3명이 평안도 사람들이었을 정도로,<sup>87)</sup> 평안도의 동학교세는 신장되어 있었다.

그러면 평안도 내의 어떤 지역에 동학교세가 강하였을까. 이를 살펴 보

84) 權寧培, "1896-1906 武裝農民集團의 活動과 性格", 『歷史教育論集』 6, 1984, p.37-38.

85) 國史編纂委員會 編, 『高宗時代史』 5, 1971, p.617의 1902년 8월 27일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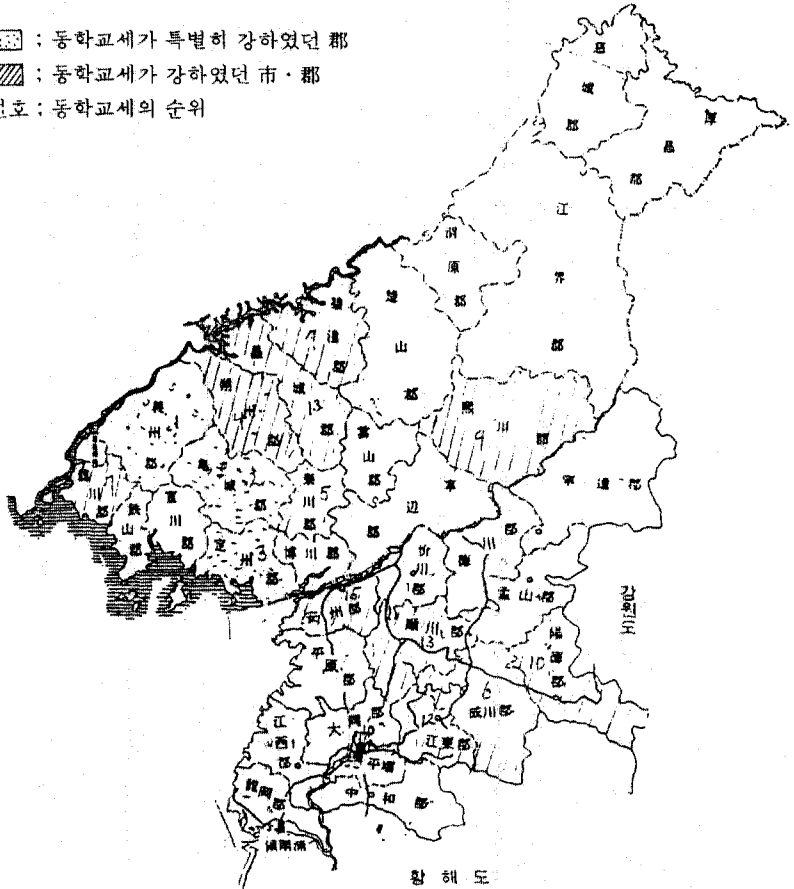
86) 李萬烈, "한말 기독교의 민족사적 의미", 『韓國其督敎와 歷史意識』(지식산업사, 1989), pp.270-271.

87) 주 55)와 동.

기 위하여 <표 4>·<표 5>를 토대로 동학이 강성하였던 지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도 1>과 같다.

<圖 1> 평안도지방에서 東學教勢가 강하였던 市·郡

- ☐ (점선) : 동학교세가 특별히 강하였던 郡
- ▨ (갈래선) : 동학교세가 강하였던 市·郡
- 번호 : 동학교세의 순위



이 그림에 의하면, 첫째 평안북도가 평안남도보다 동학교세가 강하였다. 둘째, 평안북도에는 義州, 龜城, 定州, 朔州, 泰川 지역의 동학교세가 강하였고, 평안남도에는 成川, 陽德, 江東, 順川, 安州 지역이 강하였다. 이는 개신교가 강하였던 平壤, 義州, 甑山, 宣川, 鐵山, 龍川, 龍岡, 永柔, 中和, 順安 등의 지역과<sup>88)</sup>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평양과 의주는 동학과 개신교가 모두 강한 지역이었지만 증산, 철산, 용강, 영유의 해안 지역에는 동학교세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

88) 개신교의 분포상황은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Annual Meeting 1906.;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Meeting Held at Pyeng Yang September 1907. ; 其督教監理會 編 『朝鮮監理教會年會錄』, 1984, Statistical Report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for 1907.

<별표 3> 평안도지방 개신교의 분포상황(1906·7년)

지 방			장 로 교		감 리 교		합 계	순	위		
도	시·군		교구설치	교구수	교구설치	교도수	교도수	각도	양도		
평 안 남 도	용 중 상 삼 순 =	강	1897	1,200	영 변 교 구	에 합	1,200	3	7		
		화	1896	1,000			1,000	4	8		
		원	1897	500			500	8	14		
		등	1900	64			64	19	37		
		안	1894	756			756	6	10		
	=	대	1893	4,540			3,284	7,824	1	1	
		평	1895	1,000				1,000	4	8	
		영									
		유									
		동									
남 도	=	평									
		원	1898	250	250	13	21				
		동	1901	200	200	16	28				
		천	1898	250	250	13	21				
		천	1898	400	400	10	17				
		추	1898	300	300	11	18				
		천	1900	250	250	13	21				
		덕	1902	60	60	21	38				
		산	1901	100	100	19	33				
		원	1896	450	450	9	15				
자 은 순	산	1900	125	125	18	32					
	산	1898	150	150	17	30					

<표 4>·<표 5> 및 <도 1>을 통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동학 분포상의 한 가지 특징은 동학은 도회지와 철도 주변보다 농촌, 산악 지대에서 성하였다 한다.<sup>89)</sup> 이것은 동학의 수용자들이 농촌의 지식인이어서 농촌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고, 관의 감시로 농촌, 산악 지역에 포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sup>90)</sup> 또 동학의 의식이 呪文을 외우고 清水를 올리는 등 巫覡信仰과 유사한 점이 많아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웠던 탓도 있겠다.

평	박영	천변	1899	210	131	210	12	26
	정	주산	1899	524		131	14	31
안	곽	산천	1899	652	524	6	13	
	신	성천	1897	1,749	652	5	12	
	구태	천	1893	223	1,749	2	4	
	운	산	1901	32	223	10	25	
	회	천			32	18	39	
	철	산			242	9	24	
북	의용	산	1898	1,431	286	8	20	
	창	주	1887	4,603	1,431	3	5	
	삭	천	1899	1,310	4,603	1	2	
	창	주	1894	180	1,310	4	6	
도	벽	성	1899	20	180	13	29	
	초	동	1901	79	20	19	40	
	위	산	1901	213	79	17	36	
	강	원	1900	98	213	11	26	
	자	계	1901	406	98	16	35	
		성	1905	99	406	7	16	
				99	15	34		

89)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3, 3·1 독립운동편, 1988, p.310. 에 의하면, 3·1운동 당시 평안남도에서 철도 연변 및 도심지의 시위는 기독교인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농촌 산간의 시위는 천도교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한다.

90) 金亨俊, “都市布德과 知識層布德”, 『新人間』 73, 1933.11, p.11.

## IV. 開化·革新運動과 그 性格

1903년에 이르르면 평안도의 동학교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되었다. 이후 전개되었던 동학의 운동 양상은 갑오동학농민운동 때와는 달라졌다. 갑오동학농민운동 때에는 진라, 경상, 충청도의 동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反封建·反外勢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1904년에는 평안, 함경도의 동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開化·革新運動이 전개되었다. 개화·혁신운동에서도 봉건적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반봉건적인 면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先進 諸國에 의존해야 하였으므로, 반외세적인 면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개화·혁신운동의 추진 목표는 光武 8년 7월 29일(음력 6월 17일)자 『皇城新聞』의 논설 “戒東學之說”에

聞其所謂上書政府者 則先陳五條하니 曰 設國會 立宗教 理財政 改善政治 勉遊學 等說이라

고 있듯이, 선진 여러 나라처럼 言路를 열기 위하여 국회를 설립하며, 동학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백성 교화의 근본으로 삼으며,<sup>91)</sup> 재정을 정리하고 정치체를 개선하고,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손병희는 1904년 3월 평안도의 동학 우두머리인 文學洙, 李謙洙, 羅龍煥, 金案實, 李斗珩, 羅仁協, 金裕永, 洪基億, 洪基兆, 盧錫鐵, 金永學, 林禮煥 등 각지의 동학 지도자 40여명을 東京에 불러 政治結社인 民會를 조직하게 하였다.<sup>92)</sup>

91) 天道敎史編纂委員會, 『天道敎百年略史』上, 1981, pp.340-343. 의 光武 8년 3월 望日 손병희가 議政大臣에게 올린 글에 의하면 불교와 개신교는 각각 지내온 기간이 오래되고 분파성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 동학을 통해 백성을 교화시키자고 하였다.

92) 天道敎史編纂委員會, 『天道敎百年略史』上, 1981, pp.345-346.

평안도의 동학도들은 이 민會 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안도의 동학 우두머리들은 1904년 4월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후 京城에서 大同會를 결성하는데 참여하였다.<sup>93)</sup>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창립대회를 열려고 하였던 듯하다. 이는 『皇城新聞』光武 8년 5월 2일자 기사에,

成川郡守崔基柱氏가 內部에 報告하되 挽近道內各郡에 東學·白道輩가 嘯聚徒黨 하야 不務耕織하고 煽動衆民하야 傳相浮訛하며 謗訛朝廷하고 隨其家產하야 收斂錢穀하더니 今陰曆二月內에 以何行爲인지 齊會于各其郡之說이 載路喧轉뽀뽀더러 ...<sup>94)</sup>

라 하여, 1904년 음력 2월(양력 3월 17-4월 15일)내에 평안도의 각군에서 집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것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창립대회가 계획대로 열리지는 못하였다. 『皇城新聞』, 光武 8년 5월 3일자 기사에,

平南觀察使李重夏氏가 內部에 中和郡報를 據하야 報告하기를 陰二月念間에 駐本郡 日本兵站部司令官이 來示一張匿名書故로 取見其書意則 中和東井三里 居하난 金永學이 東學魁首로 聚黨五六百名하고 積糧數百石하야 煽動民心이라 所見駭異하니 卽速詞捉하리 하얏난디 該司令官言內에 境內有如此匪徒하야 至於揭榜之境則 當發兵掩捕矣리니 指路郡校幾名을 定送云故로 依其言派給校卒則 司令副官이 率兵丁十名하고 乘夜至東井三里하야 金永學等九名을 并爲捉來하야<sup>95)</sup>

라 있듯이, 음력 2월경 中和郡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兵站司令部는 중화군의 동학도들이 자금을 모으고 일반인을 선동하자 그 사실을 중화군수에게 알리고 병력을 지원받아 金永學 등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예처럼 한국정부와 일본주둔군의 감시와 탄압으로 평안도 지방의 大同會 결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93)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3권 7장 甲辰革新運動, p.44. 본 기록에 따르면, 大同會의 결성시기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귀국 후 곧 결성하였다는 내용을 참조하면 1904년 3월 혹은 4월에 결성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94) 『皇城新聞』, 光武 8년 5월 2일, 雜報 東白匪徒.

95) 『皇城新聞』, 光武 8년 5월 3일, 雜報 平察報告.

그렇지만 평안도의 동학 우두머리들은 계속해서 중앙지도부와 접촉하며 민회를 결성하는 데 관여하였다. 1904년 음력 5월 羅龍煥, 吳榮昌, 洪基兆 등이 서울에 올라와 민회의 결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sup>96)</sup> 음력 7월에는 羅龍煥 등이 慕華館 山房에 모여 중립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sup>97)</sup> 이어 羅龍煥, 羅仁協, 文學洙, 盧錫璣 등은 평안도에 中立會를 조직하였다.<sup>98)</sup> 이 무렵인 1904년 음력 7월 중순 경 서울에서 朴南壽가 보낸 다음과 같은 통문이 내려왔는데 그 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 晝실을 보호하야 독립권을 공고케 할 스. —은 정부를 기선하야 백성의 주유권을 얻게 할 스. —은 이제 이 거의하기는 우리나라 큰 의라 즉금 일본이 아국과 전진하기는 실노 대의를 드러 동양의 평화를 주창함이니 우리가 엄정히 단속하야 일본군사상에 방히 함이 업게 하야 의리로써 의리를 손상함이 없게 할 스 —은 로비는 각각 주기가 주선하야 민간에 침탈함이 업게 할 스. —은 령방에 우의를 독독케 하고 문명을 진보하며 각국에 리익권을 향여함이 업게 할 스. —은 줄립국의 의무를 엄정히 지키게 할 스. —은 금 이십오일로 팔로가 일제히 발히 하야 동월 회일에 경스. 에 회동 할 스 —은 미스물 회장의 지휘대로 하되 만일 장정디로 아니 하는 자 잇스면 엄벌 할 스 —은 대략만 발기하니 미진요건은 이후 고시 할 스.<sup>99)</sup>

이 통문에는 會名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이 바로 中立會의 통문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번째 보이는 중립국의 의무를 엄정히 지키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것을 짐작케 한다. 또한 『天道敎創建史』에 기록되어 있는 중립회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던 평안도 동학도들과 그들의 활동지역이 아래서 보이려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00)</sup>

96) 羅龍煥, “隱道時代의 險關難境”, 『新人間』 25, 1928.7, p.34.

97)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3권 7장 甲辰革新運動, p.44.

98) 『皇城新聞』, 光武 8년 9월 13일, 잡보 東學起包와 동신문 9월 27일, 잡보 平察又報에 會長, 次會長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직의 규모는 자세하지 않으나 편성되었던 것만은 알 수 있다.

99) 『大韓每日新報』, 1904년 9월 14일, 동학통문.

100)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pp.44-45. 이 기록에 의하면 평안도에서는 라용환, 라인협, 문학수, 노석기 등이 강동, 삼동, 순천, 양덕 등지에서 중립회의 설립을 기도하다가 중앙의 명으로 정회하였다고 한다. 이 인물과 그들의 활동지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박남수의 통문에 따라 평안도에서 행해진 활동이 바로 中立會 결성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

통문에 따라 三登 등지의 동학도들은 경성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하였다.<sup>101)</sup>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일본군이 탄압하였기 때문에 음력 8월 초 평안도 내의 몇개 지역에서 대중집회를 여는 것에 그쳤다. 즉, 음력 8월 6·7일 東學黨 200여명이 成川, 등지에서 집회를 가졌으며<sup>102)</sup> 8월 7일 熙川에서 金鍾錄, 李京華 등 東學徒 수천명이 집회를 열었고,<sup>103)</sup> 8월 10일 경 順川, 孟山, 陽德, 永柔, 寧遠, 德川에서 會長 文貫一(文學洙) 등이 집회를 열었다.<sup>104)</sup>

東學 指導部는 日本駐屯軍의 탄압을 우려하여 中立會의 강령에서 中立國의 의무를 지키며 일본의 군사적인 행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표명하였다.<sup>10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駐屯軍은 평안도 동학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1904년 음력 7월 13일 安州司令部 憲兵曹長 竹井虎之介는 熙川의 동학 우두머리인 梁熙斗, 羅熙貞, 梁基龍, 金鍾祿, 崔士貞, 李京化, 金俊興, 李應夢을 安州郡守에게 체포하게 하였으며<sup>106)</sup> 음력 7월 말 江東의 日本軍은 江東의 동학 우두머리 3명을 체포하였으며<sup>107)</sup> 음력 8월 7일 삼동의 일본군이 동학도 2명을 체포하였다.<sup>108)</sup> 따라서 중립회의 결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였던 李容九는 급히 동경에 가서 孫秉熙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 中立會의 모임을 취소시키고<sup>109)</sup> 새로 進歩會를 만들어 음력 8월 5일자로 進歩會 開會에 대한 通文을 발송하였다.<sup>110)</sup> 그 내용은

101)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9일, 잡보 평찰던보.

102)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20일, 잡보 서로동도.

103) 『皇城新聞』, 光武 8년 10월 4일, 雜報, 熙川東黨.

104)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28일, 잡보 순천군보; 동신문 10월 2일, 잡보 평찰보고; 『皇城新聞』, 9월 27일, 雜報 平察又報.

105) 주 99)와 同.

106) 『皇城新聞』, 光武 8년 9월 5일, 雜報 軍部捉民.

107)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14일, 잡보 동학동문.

108)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20일, 잡보 서로동도.

109) 朴晶東, 『侍天教宗釋史』 3편, pp.5-8. 新新新新新新新新

110) 『公使館記錄』, 『鎮平義元城往來』, 1904년 進歩會通告; 邢文泰, “1904·5년대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究—進會·進歩會를 中心하여—”, 『史學論志』 4·5집, 1977, pp.81-82에서 재인용.

一. 會名은 進歩會로 定할 事. 一. 以本月晦日로 開會할 事. 一. 獨立을 保全할 事. 一. 政治改革을 獻讓할 事. 一. 人民의 生命 財産을 保全케 할 事. 一. 財政을 整理할 事. 一. 同盟國 軍事上 保助할 事. 一. 會員은 一齊 斷髮할 事<sup>111)</sup>

라는 것이었다.

통문에 따라 평안도의 각 지역에서 진보회의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평안남도 지방은 寧遠에서 음력 8월 29일 4·500명이 집회를 개최한 것<sup>112)</sup>을 시작으로, 价川에서 8월 30일 300여명이 客舍 앞에서 개최하였고,<sup>113)</sup> 平壤에서 羅龍煥, 林禮煥, 洪基兆, 洪基億, 崔普鉉, 林正淳, 崔周憶, 황사영 등이 9월 1일 개최하고 會長에 金光洙, 副會長에 金正鎰을 선출하였다.<sup>114)</sup> 이어 咸從에서는 9월 1일 수천명이 개최하였고, 龍岡에서 600명, 江西에서 400명, 順安에서 1,000명, 江東에서 수백명이 각각 개최하였다.<sup>115)</sup> 평안북도 지방은 정주에서 8월 29일 金昌河 등 400명이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鐵山에서 8월 29일 300명, 그리고 8월 30일 宣川에서 수백명, 龜城에서 1,000명, 郭山에서 300명, 博川에서 朴基根 등 수백명, 泰川에서 6·700명, 義州에서 수백명이 각각 개최하였다.<sup>116)</sup>

開會시 각군의 進歩會는 개화의 징표로 斷髮을 하였다. 그리고 통문에서 밝힌 獨立을 保全할 것, 政治改革을 獻義할 것, 人民의 生命 財産을 保全케 할 것, 財政을 整理할 것의 4가지 목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國會의 설립, 布教의 자유, 各國 主教를 보호할 것. 萬國公法에 따라 立旗를 금할 것 등도 덧붙여 거론하였다.<sup>117)</sup> 또한 조직을 편성하고 會長, 副會長, 總代, 書

111) 『公使館記錄』, 「鎮平義元往來」, 「進歩會通告」; 刑文泰의 전제논문 p.81에서 재인용.

112) 『大韓每日申報』, 1904년 10월 21일, 잡보 평찰우보.

113) 『皇城新聞』, 光武 8년 10월 17일, 雜報 价川郡報.

114) 金秋崗, 「羅大領의 奇計」, 『新人間』 79, 1934.5, pp.42-45.

115) 『大韓每日申報』, 1904년 10월 21일, 잡보 평찰우보; 10월 29일, 잡보 평찰치보.  
116) 『大韓每日申報』, 1904년 10월 21일, 잡보 평찰우보; 10월 27일, 잡보 평북회도; 10월 30일, 잡보 의주군보.

117) 『皇城新聞』, 光武 8년 10월 17일, 雜報 价川郡報.; 金秋崗, 「羅大領의 奇計」, 『新人間』 79, 1934.5, p.42-45.

記, 會計 등을 선발하였다.<sup>118)</sup> 1904년 11월 상순 평안도 각군에 조직된 진보회의 임원과 그 구성원 수는 다음의 <표 6>과 같다.<sup>119)</sup> 진보회의 會長, 副會長은 전부 士人으로 임명되었으나, 評議員에는 士人 외에도 農民 및 商人의 참여가 많았다. 회원수는 평안남도가 북도보다 많았는데 이는 평안북도 지방에서는 러·일 전쟁으로 활동이 제약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평안도 전체의 회원수는 총 69,410명으로, 전국 진보회원수의 56.9%를 차지하였다.<sup>120)</sup>

이렇듯 평안도 동학도들이 개화·혁신운동, 즉 민회의 결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째 평안도는 다른 지방보다 국제적인 무역이 발달하여 서구문물을 일찍 접할 수 있었고 開化思想이 강한 곳 이어서 평안도 동학도들이 개화운동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光武 4년 9월 25일 평안도 察邊使 겸 觀察使가 내린 훈령 중에,

近日... 無論邑屬與平民 動稱開化之說<sup>121)</sup>

이라 있듯이, 평안도인들은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는 평안도인들이 계몽사업의 하나로 학교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사실로도 알 수 있다. 1910년 경 전국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수는 2235개소였는데 평안남도에 427개소 평안북도에 376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평안도 전체로는 803개소였는데 이는 전체의 31.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sup>122)</sup>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이렇듯 개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도 동학도들도 개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02년 손병희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라용환, 라인협, 임례환, 홍기조, 홍기억, 오영창, 김락렴, 이경수, 韓用九 등의 평안도 도인과 鄭桂玩, 韓泰勳, 朴永九 등의 함경도 도인

118) 『公使館記錄』, 『鎮平義元城往來』; 邢文泰 전계논문 p.82에서 재인용.

119) 『公使館記錄』, 1904 『陸海軍往復一進會』와 형문태의 전계논문을 참조하여 작성.

120) 邢文泰, 전계논문, p.91.

121) 奎章閣圖書 古 5125-4, 『非章訓學存案』 4책, 光武 4년 9월 25일의 평안도찰변사 겸 관찰사의 훈령.

122) 『皇城新聞』, 光武 3년 4월 7일, 雜報 去舊從新; 李光麟, “關西地方과 改新教”,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p.243에 제시된 1910년 경 전국 사립학교의 지방별 수효.

<표 6> 평안도 각군의 진보회 임원과 회원수

도	군	회장	신분	부회장	신분	평의원				회원수
						사인	농인	상인	기타	
平 安 道	平壤	金光洙	士人	金正鑑	士人	5	3	2		4,200
	中和	朴明珠		李宗植		5	4	1		1,500
	順安	全秉律		吳鳳梧		4	1	3	2	2,700
	咸從	鄭惠南		金仁國		4	4	2	主事	2,820
	江西	魯秉稷		金振鐸		4	5	2	司果	640
	甌山	張翰星		張明坤		3	5	2		580
	慈山	鮮于弘		車顯載		2	5	3		1,030
	成川	李昶一		羅周涇		4	3	3		4,900
	陽德	金致中		崔文甫		3	4	3		5,100
	江東	金呂瓊		林正龍		2	5	3		3,050
	三登	白仁迪		尹貞燮		3	5	2		4,070
	順川	文貫一		吳成龍		4	5	3		2,800
	新倉	李演洽		金春植		3	4	3		4,070
	肅川	金案實		安處欽		2	6	2		1,600
	寧遠	劉啓憲		白洙環		6	8	4		2,800
德川	朴汪植		吉隱初		2	7	1		3,400	
孟山	朴春一		曹炳得		6	5			3,050	
价川	崔鳳官		李永模		6	5	1		1,540	
	합		18		18	68	84	40	2	49,850
平 安 道	寧邊	康載隣	士人	郭秉挺	士人	7	3			6,030
	熙川	金鍾錄		李珍數		5	6	1		1,030
	泰川	張永奎		金允河		2	6	3		1,020
	龜城	劉孝化		許碩吉		3	5	2		1,300
	朔州	白允祚		文宗玉		4	5	1		1,400
	義州	安鼎坤		安國鎮		4	5	1		1,150
	龍川	李東燾		韓國正		4	4	2		1,030
	鐵山	金弘敏		李技華		4	4	2		1,000
	宣川	金炳暉		金故斗		5	4	1		1,200
	定州	金昌河		田萬永		4	5	1		2,500
	郭山	金鳳軒		金鎔呂		4	4	1		1,050
	博川	李貞鳳		金壽吉		2	5	2		850
	합		12		12	48	56	17		19,560
	총합		30		30	116	140	57		69,410

을 京城 西江으로 불러 道人 중 聰俊子弟로 하여금 현대문명의 학술을 학습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었을 때 평안도 도인들은 일제히 찬성하였다. 123) 즉 평안도 동학도들은 개화적인 활동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문명개화에 대한 열망은 다른 도에 비해 더 강하였다. 1902년에서 1906년까지 일본에 유학을 갔던 동학도의 자제 중에서 평안도 출신의 동학도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124)

그러면 이들은 왜 문명개화에 관심을 두었을까. 1904년 음력 7-8월 중립회가 결성될 무렵에 羅仁協이 낸 광고문에는,

우리 대한이 한 모퉁이에 궁벽키 처한야 인심이 열리지 못한 고로 세계 각국의 문명기 화를 풍속을 아지 못하고 각부대신은 응폐총명하야 미관미작을 줄만 알고 렬읍수령은 백성의 기쁨만 글거서 인민의게 탐학만 한 고로 세계 각국이 야만국이라 칭호하니 었지 상통치 아니하리오. 향자에 아병이 함경도 평안도에 돌립하여 가옥을 추화하며 부녀를 겁탈하되 방어호를 물고 황황분주하니 인심이 기명치 못하야 합심못된 연고라. 이런 고로 팔도에 유지한 자가 공론하되 회사를 황성에 설립하고 팔도인민이 단회하야 타국문명기 화를 본바다 한·일·청 삼국이 동양을 평화하야 국가를 공고케 하고 대신과 수령의 모학한 경사를 업게하고 인심을 부지홀 뜻으로 통기가 잇는 고로 이긋치 회집하니 대한이 기명하면 야국강토를 방어홀지라 125)

라고 있다. 요컨대 평안도 동학도들은 문명개화가 되지 못하여 매관매작 등의 정치적 부패가 생겼으며 러시아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인민이 단결하여 문명개화를 이루면 정치적 부패가 일소되고 독립이 보전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관점은 갑오동학농민이 치열했던 삼남의 동학도들과는 달랐다. 1904년 10월 초 충청도 진보회장이 각지에 보낸 통문에,

123) 趙基周, 『東學의 原流』(天道教中央總部, 1979), p.224.

124) 李寅燮, 『元韓國 一進會歷史』(文明社, 1911), 권4 광부 11년, pp.5-7에 의하면, 천도교 혹은 일진회 소속의 자제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은 총 50여인인데 1907년 10월 경 아찌 귀국하지 않았던 사람은 32명이었다. 남아있던 사람들을 지방별로 나누어 보면 평안도인이 32명 중 23명이나 된다. (황석교는 경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는 평안도 강동 출신이었다.)

125) 『大韓每日申報』, 1904년 9월 14일, 동학광고문.

夫土地者 國之基礎이오 民之命脈이라. . . . 獨於我國에 國家疆土를 私相賣買  
 하여 賄賈收擄이 倍徙賦納하여 富益高貴高貴하니 衆民之財를 何可聚며 全國之稅를  
 何可廢리오 今若無田政之更張이면 必至於民國難保之境이니 田地畝土를 革其私相  
 賣買之法하고 其賦則 依式納於度支하고 其實則 每結三十兩式分定하여 收納于宮內  
 府次로 十三府民이 發通設會社하와 京府訓令이 不遵行會하얏기로 茲以廣示하니<sup>126)</sup>

라고 있듯이, 충청도의 동학도인 진보회원들은 토지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경상도의 경우는 경상도 진보회장 朴忠一이 議政大臣  
 에 올린 公函에,

今日之政府諸僚가 果如何人也오 大則狼豺오 小則狐狸니... 一會團聚에 改善政治  
 와 人民生命·財產保護로 爲急先義務하니<sup>127)</sup>

라고 있듯이, 貪官汚吏의 제거에 의한 정치의 개선에 있었다. 요컨대 충청도,  
 경상도 등 삼남의 동학도들이 토지 문제의 해결과 政治의 革新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반면 평안도 동학도들은 문명개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도 문명개화를 위한 계몽운동에 중심이 두어졌다.  
 『大韓每日申報』, 1904년 11월 15일, 잡보 평랑익신 중에서 평양 進步會의  
 활동을 살펴 보면,

진보회에서 음력 10월 27일 오후 두시에 평양성내 옷맛지에서 기 회하고 사대강  
 념을 포고하고 회원은 이천명가량이라하며 시국에 급업할말로 연설하얏고 평양성내  
 유지한 사람 몇십명이 면학회를 창립한지 슈삼삭에 회원이 백여인이요 민 목요일 오  
 후 칠시에 회동기 회하고 학문상 유조한 말로 서로 권면한디 대단이 발달되며 일성  
 중 인민이 면학회를 대단히 앙모하고

라 하여, 평양의 동학도로 구성된 진보회원들이 1904년 음력 10월 경 勉學  
 會를 설립하여 인민을 계몽시키고 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정주의 동  
 학 우두머리인 朴燦明은 1904년 12월 자식과 從弟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進步會와 一進會가 통합한 직후의 一進會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私塾을 설

126) 『皇城新聞』, 光武 8년 10월 18일, 雜報 保民會社.

127) 『皇城新聞』, 光武 8년 12월 8일, 雜報 慶南會上函.

립하여 그의 자식 및 회원의 총명한 자제를 입학시켜 新學文을 배우게 하는 문명개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sup>128)</sup> 그리고 義州에서는 1905년 俞承淵, 金子一, 李興燁이 義城學校를 설립하여 1908년까지 운영하였으며<sup>129)</sup> 龜城에서는 1905년 文仲承, 元致英, 崔信弘, 全中信 등의 발기로 維新學校를 설립하였고<sup>130)</sup> 泰川에서는 白始榮, 李成龍이 1905년 9월 泰興學校를 설립하였다.<sup>131)</sup>

둘째로는 평안도 동학도들이 갑오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극한 방법보다는 온건한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평안도 동학도들의 신분 및 이들의 경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앞서 살폈듯이 평안도지방 동학 수용의 주도층, 즉 동학지도자들은 신분적으로 兩班層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들은 진보회 운동시 儒生 혹은 士人들을 자처하며 활동하였다. 1904년 음력 9월 1일 평양의 진보회 개최시 라용환, 라인협, 홍기조, 홍기억, 崔普鉉, 임래환 등은 軍部에서 進歩會의 개최를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平安道各郡儒生等 謹齊沐再拜上言干巡相國觀察使閣下 伏以生等 現聞世界各國 國各有國會 國各有國教 措其國於泰山之安…所謂東學白學之輩 大有保國安民之公議 爲其士民者 豈可爲袖手安枕 能不進步于開明之域哉 故生等 大開民會 欲樹保安之策<sup>132)</sup>

이글에서 주목되는 점은 평안도 동학도들이 ‘儒生’, 혹은 ‘士民’의 이름으로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으므로 평안도 관찰사는 이들이 동학도라는 것을 짐작하였지만 이들 중에 儒生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강력히 진보회 활동을 저지시키지 않았다.<sup>133)</sup> 그리고 진보회에서 勉學會를

128) 『皇城新聞』, 光武 8년 12월 24일, 雜報 朴氏有志. 그가 설립하였던 사숙은 光武學校의 전신이었는데 그는 이 학교의 監督으로 활동하였다. (金允植, 『李光洙와 그의時代』 1(한길사, 1986), pp.108-109와 李寅燮, 『元韓國一進會歷史』 2(文名社, 1911), p.60.)

129) “天道教義州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61, 1924.2, p.27.

130) “天道教龜城郡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67, 1924. 8, p.47.

131) “天道教泰川宗理院”, 『天道教會月報』 170, 1924.11, p.34.

132) 金秋崗, “羅大領의 奇計”, 『新人間』 79, 1934.5, pp.42-45.

133) 同上.

창립하자 평양군수 팽한주도 학문상에 도움되는 말로 연설하였고 보조금 10원을 보내기까지 하였다.<sup>134)</sup>

경제적인 면을 보면 평안도의 동학 지도자들은 지주인 富農層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평민층이 다수를 점한 일반신도들의 경제적 상태도 삼남의 동학도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었던 것 같다. 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선교사 베어드(Wiliam M. Baird, 한국명 裴緯良)가 『독립신문』의 영문판 The Independent 1897년 5월 20일자에 기고한 글에는 “서북지방은 양반계급이 없고 자립적인 중산층이 많아 희망에 넘쳐있다”고 있다.<sup>135)</sup> 또 1897년 평안남도 順川郡의 4개면의 호적에 서는 663호 중 머슴을 고용하고 있는 호는 10호였다. 경상·전라·충청도는 머슴을 고용한 농가의 비율이 10%에 달했던 데에 반해 평안도는 그 비율이 1.5%에 불과하였다. 이는 평안도에는 토지에서 분리되어 雇農으로 전락한 농민층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다.<sup>136)</sup>

이처럼 양반이 중심을 이룬 평안도 동학 지도자 중에는 지주인 부농이 많았고 일반 신자들의 경제적 상태도 극빈한 雇農이 적었으므로 갑오동학 농민운동시 납첩의 동학도들이 전개하였던 對富民·對兩班 투쟁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고 온건적인 개화·혁신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나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田政의 개혁과 탐관오리의 제거와 같은 경제·정치적인 것보다 문명개화적인 계몽운동에 열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평안도지방 동학의 전래와 그 수용의 주도층, 포교의 확대와 교세의 신장, 그리고 평안도 동학도의 開化·革新運動과 평안도 동학의 성

134) 『大韓每日申報』, 1904년 12월 5일, 잡보 평양리신.

135) 李光麟, 전제서, pp.244-245 에서 재인용.

136) 宮鳴博史, “朝鮮甲午改革以後の商業的農業”, 『史林』 57, 1974. ; “갑오개혁 이후의 상업적 농업-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혁명의 연구』(백산서당, 1982), pp.262-264.

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평안도지방에는 동학이 1870년대 말부터 주로 황해도 동학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용은 甲午東學農民運動 후인 1896년에서 1900년에 걸쳐 각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북점 계통의 동학도들이 평안도에 潛入하여 포교활동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동학을 수용하였던 주도층에는 兩班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地主인 富農層과 自立的인 小農層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지만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로 관리로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었던 지식인층이었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정치·사회적 불만으로 동학에 입교하였다.

동학 수용의 주도층들은 종교적인 教化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관리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였다. 이때 이들은 東學의 平等思想과 後天開闢思想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無病延壽 등을 가증하게 해준다는 속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학 수용자 중에서 그 활동이 두드러졌던 사람은 成川の 羅仁協·羅龍煥, 龍岡의 洪基兆·洪基億, 順川の 文學洙, 定州의 李謙洙 등이었다. 동학 수용자들의 포교활동과 동학지도부의 지휘·통제·조직정비활동 등의 지원으로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는 1897년 이후 점차로 擴張되기 시작하여 1900년에서 1904년까지의 기간에 비약적으로 伸張되었다. 이것은 義和團亂, 러·일전쟁 등으로 惡化되어 있었던 평안도지방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었다. 동학이 성했던 지역은 義州, 龜城, 定州, 朔州, 泰川, 成川, 陽德, 江東, 順川 등의 지역이었다. 이러한 교세의 발전으로 1903년 이후에는 평안도의 동학교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평안도의 동학도들은 1904년에 전개되었던 開化·革新運動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정치의 혁신과 토지문제의

해결보다는 문명개화에 관심을 두고 勉學會 등의 啓蒙運動에 힘썼다. 이점은 평안도 동학 지도층에 양반과 富農이 많았고, 일반신도들도 경제적으로 極貧하지 않아 갑오동학농민운동과 같은 과격한 방법보다는 온건한 개혁노선을 지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